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을 바라보며 연약한 우리도 영원한 새 생명을 믿음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받은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며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4월 13일 (토) 제 1964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소셜네트워크의 몰락과 현대인의 세 가지 욕구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보는 장소이다

지난 2월 4일로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SNS)인 페이스북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년 동안, 페이스북은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 세계 30억 이상의 사용자와 시가총액 1.2조 달러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페이스북 등장 이후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소셜네트워크들이 개발되었으며, 페이스북을 포함한 소셜네트워크 앱은 현재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 소셜네트워크는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의사소통과 개인과 불특정 다수 사이의 대중적 의사소통을 통합하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매체로 주목받았다. 소셜네트워크 이전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첫째는 편지, 유선 전화와 휴대 전화 등과 같이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사적 매체들이 있었으며, 둘째는 신문, 라디오, 책, 텔레비전과 같은 개인 혹은 단체와 다수 간의 일방적인 전달을 위한 대중 매체 혹은 레거시 미디어로 이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 미디어는 용도와 윤리적 책임의 정도, 사회적 의미에 있어 확연히 구분되었다. 예를 들어 사적 매체는 소문과 사적 대화가 허용되는 공간이었다면, 대중 매체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높은 윤리적 기준과 공적 역할이 요구되었다.

소셜네트워크의 명과 암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의 등장은 이러한 구분을 통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소통 방식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전통적인 소통 방식을 무너뜨리는 미디어 혁명을 일으켰다. 예컨대 2010년에 이집트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은, 대중 매체가 그 공적 역할을 할 수 없었을 때, 개인이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일인 미디어가 되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과 동시에 사적 통신 수단 역할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랍의 봄'은 정치적 혁명과 동시에 네트워크 혁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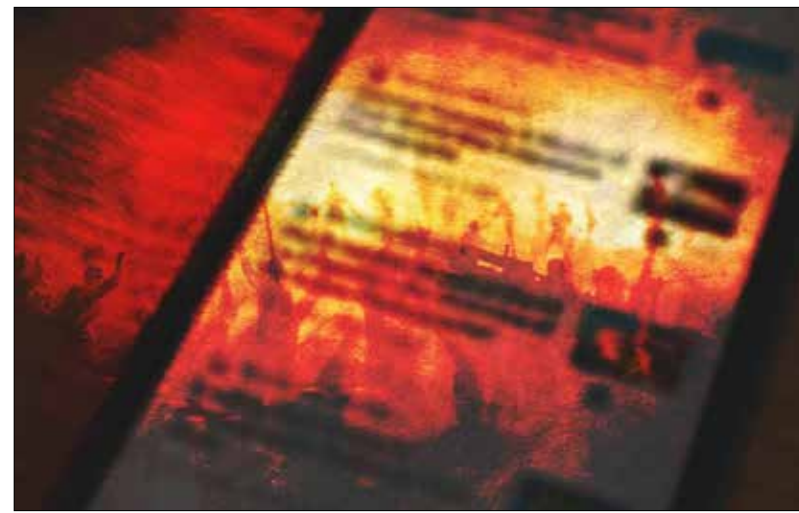
소셜네트워크 혁명은 긍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부정적

인 결과도 있었다. 전통적인 소통 방식의 해체로 일어난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첫 번째 결과는 대중매체와 레거시 미디어의 공적인 역할이 해체되고, 언론이 개인과 대중의 기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진실에 대한 전달과 비판 역할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결과는 오히려 사적인 의사 표현에 공적인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약화되고 자기 검열이 강화되었다. 공적 미디어는 대중에 영합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개인은 개인의 의견을 억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의 출현과 발전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되는 혁명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재발견하게 하였고 사적인 영역에서의 공적 책임감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서는 사실과 진실의 기준을 낮추고 기대하지 않는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이 강화되는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것은 공적 영역의 축소로 의미했으며, 결국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사실과 논리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강화하고 대결하는 정체성의 대결 정치를 강화하였다.

(3면으로 계속)



비극의 소비자가 되지 말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쟁, 무차별 총격 사건,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난 연예인, 정치극, 그리고 재판받는 첨단 기술 관련 억만장자들 등. 오늘날 사회에는 끊임없이 뉴스가 쏟아지고, 그 모든 뉴스를 쫓겨봐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보를 얻는다는 건 사회와 연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역량을 강조하는 현대 문화의 미덕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물론 탄탄한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이고 시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건 가치가 있다. 창작자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전할 때 정의가 구현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대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뉴스를 통해서 각 세대가 이웃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사용하도록 영감을 받는다. 개인과 공동체로서 서로 배우고, 연결하고, 또 성장하는 데에 뉴스는 도움을 준다. 하지만 나쁜 뉴스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도스크롤링(doomscrolling: 뉴스 스크롤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더불어 쉬지 않고 팟캐스트를 들으며 또 속보가 뜰 때마다 오는 알림을 강박적으로 클릭하는 게 과연 그리스도의 왕국을 잘 섬기는 데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정말로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쏟는 걸까? 아니면 비극이 우리의 오락이 되었기 때문일까?

참여나 도피냐?

솔직하게 말해서, 쉬지 않고 새로운 소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나와 이웃의 고통을 피하는 방법인지도 모른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비난하는 게 바로 앞 모퉁이에 있는 노숙자를 돕는 거보다 훨씬 쉽다.

(9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이동진 목사



4면 푸른초장 한일철 목사



7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사회 비판 이길호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특별집회

특별집회

Special Conference
at Yuong Sang Presbyterian Church

일시 2024년 4월 19일(금) - 21일(주일)

- 금요일 & 토요일 7:30 PM
- 주일 7:30 AM, 9:30 AM, 11:45 AM

※ 모든 집회는 영어로 진행되며 실시간 통역이 있습니다.
※ Services will be in English with translation in Korean.

장소 영생장로교회
706 Witmer Road, Horsham, PA 19044

말씀충만·기도충만·성령충만·사랑충만
영생장로교회
Yuong Sang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정승환
215-542-0288 | http://www.yspc.org

강사 마크 존스 목사
Rev. Mark Jones

- 밴쿠버 페이스 개혁장로교회(PCA) 목사
- 프리스티이트 대학교 신학부 연구교수
- 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마크 존스의 선행과 상급」 등

발행인 칼럼

품(品)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품(品)이란 단어는 물건을 지칭한다. 따라서 품격(品格)이란 말은 그 물건의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헤아리는 것이다. 그 품격을 셋으로 구분하면 이렇다. 상품(商品), 명품(名品), 작품(作品)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에도 그렇지만 필자가 사는 뉴욕의 맨해튼은 이세 품격이 조화롭게 엮여 있다. 모든 블록마다 값싼 상품을 들고 호객(呼客)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다소 도도한 자태로 준비하게 서 있는 명품거리도 곳곳에 많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영롱(玲瓏)함을 더 드러내는 작품들의 전시관도 꽤 있다. 인생을 품으로 표현한다면 상품 같은 인생, 명품 같은 인생, 작품 같은 인생이 있지 않겠는가.

상품은 자기의 고유함이 없다. 자기의 인생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는 것 같다. 자기의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먼저 정해 놓은 듯하게 "나는 안 돼"를 벗어나지 않은 채 살아간다. 한국에서 총선이 끝났다. 300명의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된 것이다. 나라 전체를 위한, 자기 지역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기대 받는다. 그러나 슬프게도 국회의원을 거수기(擧手機)로 표현할 때가 있다. 어떤 중요한 안전에 대해 자기 자신의 고유한 판단력이 매몰된 것인지 아예 없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아무런 생각 없이 당의 방침대로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적잖은 기독교인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관점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사안에 찬성표를 힘 있게 던지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啞然失色)하게 된다. 왜 그들만 탓하랴. 국회의원을 포함 그 누구도 인생을 상품같이 처신해서는 안 된다.

명품이 그냥 만들어지겠는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한을 한을 정성을 다해 만들어 내놓은 것이 명품이다. "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 법칙"이라는 공병호씨가 쓴 자기계발서와 같은 책이 있다. 한 가지에 10년을 투자하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당대에 자기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들은 최소 10년 정도의 지속적이고 정교한 훈련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필자 자신도 뜨끔하다. 대학 때에 붓글씨 반에 들어갔다가 몇 번 베투를 걸고 막에 적신 붓으로 일(-) 자(字)만 몇 장 그리다가 포기했기 때문이다. 며칠 만에 추사 김정희의 글자를 스스로 기대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딱하다. 명품 인생은 결코 속성(速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명품이 그렇듯이 명품 인생도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자아내고 누군가의 필요를 멋지게 채워준다.

또 뜨끔한 적이 있었다. 바이런 안 목사님이 쓴 "자기 목소리로 설교하라"는 책 때문이다. 환경적 목사님 목소리나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로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을 때 그분들의 목소리를 흉내 내보곤 하였다. 세계 정상의 프리마돈나였던 흥경씨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기에게만 있는 고유의 목소리를 찾아야 같은 노래를 불러도 자신의 특별함을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음악가들이 그저 다른 사람을 흉내 내는 데 그치고 맙니다. 자기만의 고유함을 찾아가다 보면 길이 나타나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같은 상품은 헤아릴 수없이 많다. 한정된 숫자이긴 하지만 같은 명품도 여럿 있다. 그러나 작품은 오직 하나이다. 그 작품의 장인(匠人)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상품도 아니요, 명품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당당히 살아가자.

그는 '자기 분야에서 한 획을 긋는 인물로 성장하려면 최소한 10년 전후의 선행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앤드루 카네기,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천재라 부르던 이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취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최소 10년의 지속적이고 정교한 훈련을 하였다. '10년 법칙'은 바로 10년간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후 지식의 성장속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이것은 성공을 꾀하는 명쾌하고 분명한 기본 원칙이다. 자신을 최고의 수준으로 자리매김하려면 한 분야에서 10년의 집중적인 경험과 훈련,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요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품(商品) 명품(名品) 작품(作品)

카이사르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은 더더욱 그렇다. 세상은 그날을 기점으로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마크 트웨인이 믿음(faith)을 설명한 유명한 말이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believe) 것." 그는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럼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들은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육체 부활을 믿는 걸까, 아니면 증거 때문에 믿는 걸까?

기원전 44년 3월 15일-3월의 이데스(Ides of March, 3월 가운데날)-에 수십 명의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했다. 그날로부터 거의 77년 후인 서기 33년 4월 5일 일요일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역사가가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 가지 관행을 따르면 우리는 두 사건 모두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

1. 두 가지 방법의 구분

과학적 방법은 관찰을 기록하고, 가설을 세우고, 예측하고, 반복 가능한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그러나 수많은 역사적 사실은 과학적 방법을 활용한 반복 실험이 불가능하다.

카이사르가 기원전 49년 1월에 루비콘 강을 건넜거나, 조지 워싱턴이 1776년 12월 25일에 델라웨어 강을 건넜거나, 연합군이 1944년 6월 6일에 영국 해협을 건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사람은 이러한 사건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역사적 방법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역사가 루이스 고트살크는 역사적 방법을 "과거의 기록과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양심적인 역사가'는 개인적인 편견을 버리고, 문서를 연구하고, 유물을 조사하고, 사실을 수집하고, 증거를 따른다. 귀추법(Abductive reasoning)을 통해 역사가는 사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설명을 제시한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주장이 있다. 과학에 호소하여 이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과학의 한계를 무시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고전 15:14)라고 인정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의 핵심 주



장은 역사적 방법을 통해 검증과 반증이 가능하다.

2. 두 간격의 조사

먼저,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이를 보고하는 원본 원고 사이의 간격을 조사한다. 이 간격이 짧을수록 작성자는 실제 사건에 더 가깝다.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에 암살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비록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과거 사건을 믿는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사실을 믿는다. 목격자들은 눈으로 본 사실을 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많은 사람이 카이사르의 암살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고등학교 때 1599년에 초연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를 읽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출처는 토마스 노스가 1579년에 영어로 번역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Parallel Lives)이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는 카이사르의 암살 후 약 160년이 지난 서기 2세기 초에 가서야 그 책을 썼기 때문에 목격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럼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출처는 누구였을까?

플루타르코스는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기(Gallic Wars)를 일부 자료의 출처로 사용했다. 카이사르야 당연히 당사자로서 암살의 목격자였지만, 그가 거기에 관해서 글을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마도 키케로가 목격했을 것이

다. 그러나 그는 그 운명적인 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채 일 년 후에 죽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 사건의 살아 있는 목격자를 접할 수 없었지만, 로마 사회의 저명한 구성원으로서 아마도 지금 우리에게 없는 여러 문서와 구전 전통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카이사르의 암살과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원본 문서 사이의 간격은 약 160년이다. 이에 비해 신약 성경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과 그 가까운 동료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플루타르코스는 카이사르가 죽은 지 160년 후에 글을 쓴 반면,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빈 무덤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주장을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목격자들의 생애 동안에 글을 썼다. 서기 50년에 이미 바울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기록했다(갈 1:1). 예수께서 서기 33년에 죽었다면, 부활과 이를 보고하는 최초의 원본 사본 사이의 간격은 고작해야 20년 미만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대 역사의 표준이 되는 플루타르코스나 신약성경 작가가 쓴 원본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 간격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원본 원고와 현존하는 원고 사이의 간격이다. 역사적 방법은 텍스트 비평을 사용하여 (손으로 쓰인) 현재의 사본을 검토하여 원본을 재구성한다. 이 간격은 짧을수록 좋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Store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유
(323) 737-7699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성경·찬송가 | 기독교의 모든 것 | 일반서적
인터넷 쇼핑물: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주석, 설교, 기독교사건 시리즈 전집류 재고 특가세일 권당 \$7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소셜네트워크의 몰락과..

(1면에서 계속)

소셜네트워크 탈출 현상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젊은 층은 소셜네트워크를 탈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더욱 강화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소규모 단위의 대화방과 모임을 중심으로 모임 수 있는 인터넷 가상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거의 반수가 소셜미디어를 떠나고 있으며 (40% >28%),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내의 대화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작년 11월 16일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30퍼센트 중반이지만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는 93퍼센트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제는 전화나 편지와 같이 사적인 매체에 가까운 메신저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메신저가 현대인의 의사소통에서 핵심 수단이 된 이유는, 단순히 문자 기능을 넘어서,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의 생각을 자유롭게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방' 때문이다. 메신저 대화방의 최대 장점은 대화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메신저 대화방은 사적 매체가 지닌 거짓 소문의 진양지가 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범위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현재 소셜네트워크는 각각의 극단적인 생각을 강화하거나 상충을 선전하는 일종의 광고판 역할로 변질되어 있다.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과 단체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개인은 소비자일 뿐이다. 소셜네트워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온라인 광고판이 되어 버렸다.

자유와 안전, 인정

현재 일어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의 약화와 메신저 앱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은 인간의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욕구들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유와 안전에 대한 욕구이다. 사실 이 둘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욕구이다. 안전하게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는 현대인에게 늑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목장과 같은 위험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누구든 끼어들어 DM(Direct Message)을 보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답글을 달고, 원하지 않는 광고를 봐야 하는 위험하고 불편한 공간이 소셜네트워크인 것이다. 또한 개인의 의견에 과도한 공격 의무를 부과하고 혐오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열린 공간이 아니라, 안전한 문과 벽이 있는 집과 같은 곳을 원하게 되었다. 메신저 앱은 이러한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메신저 앱은 자신 거친 글들이 60초 안에 사라지고, 지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으며, 추적이 불가능한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메신저 앱은 인간의 인정 욕구의 복고풍을 소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셜네트워

크의 성공은 개인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받은 '좋아요'의 숫자를 통해 인정 욕구를 충족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아무런 표 현도 하지 않는 절대다수가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추측을 만들어내었다.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역측인 것이다. 인정 욕구의 무제한이기도 하다는 것이 소셜네트워크의 '좋아요'의 함정이다. 언제나 '좋아요'를 누르는 분자의 수보다 누르지 않는 분모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분모의 수가 제한적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와 메신저 앱의 대화방은 소셜네트워크에 비해서는 '좋아요'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할지라도 가성비에서 더 큰 만족과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다. 현대 젊은이들은 메신저 앱의 대화방을 통해 소수의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자신들의 인정 욕구를 충족했던 과거 마을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 없는 자유, 안전, 인정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진실의 측면에서 보면 결코 환영할 만한 현상이 아니다. The Economist는 네트워크가 엔터테인먼트로 전환된 이후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보는 내용의 3퍼센트만이 뉴스이며, 젊은이들의 거의 절반이 소셜 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고 통계를 인용하면서 보도하였다. 그러므로 비교적 자유롭고 안전한 메신저 앱으로 이동한 젊은이들에게도 여전히 진실과 사실의 측면에서 본다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현대인은 자유와 안전, 인정이라는 욕구를 충족

하기 위해 디지털 유목민처럼 이런저런 미디어를 찾아 배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진리의 영역은 더욱 축소되고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현대인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와 안전, 인정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환경이 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와 메신저 앱과 같은 현대인의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와 가상 세계를 통한 소통의 강화는 진리를 희생하면서라도 자유와 안전과 인정을 얻으려는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리 없는 자유와 안전과 인정은 과연 진짜 자유와 안전과 인정일까?

결론으로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을 때 팀 체스터는 페이스북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얼굴을 나타내며, 보여준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 성경은 진짜 페이스북이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궁극적인 인스턴트 메시지이다. 교회는 진정한 소셜 네트워크이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보는 장소이다.

복음은 이렇게 주장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기초 없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산의 어름 잔해처럼 곧 녹아 없어질 자유와 안전, 인정('좋아요')의 세계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영원히 녹지 않고 떠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진리의 소식인 복음이 현대인의 진정한 소셜네트워크와 메신저가 될 날이 오길 기도한다.

by 이춘성, TGC

시론

교회가 이 시대의 품격이다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부활절이 지나고 봄이 되었다. 꽃이 피었지만, 봄은 꽃으로 오기보다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 같다. 수요일마다 모이는 '찬양노래교실'에서는 찬양도 부르지만, 청춘시대를 소환하는 가곡도 부르고, 인생 연륜을 노래한 내용이 담긴 건전가요도 부른다. 나름 '격랑의 시대'를 살아온 참석자들은 '옛친구(하얀 모래 위에)'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동무생각(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을 부르면서는 눈을 창박 하늘로 향한다.

또한 다양한 찬양들은 신앙인이 아닌 참석자들의 마음도 만지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음악은 이렇게 힘, 선한 영향력을 준다.

방탄소년단(BTS)은 데뷔 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60~70년대를 가슴 뛰게 했던 비틀스나 사이먼 앤 가펩클의 노래 이상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주고 있다. 시대를 뛰어넘어 이들의 음악은 멜로디, 가사, 화음, 랩, 댄스, 목소리 등 그 어느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음악 자체가 대중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십 년 전의 청춘들이 비틀스와 사이먼 앤 가펩클의 음악에 사로잡혔듯 오늘날은 한국의 젊은이 일곱 명의 어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총선철이다. 뉴스에 소개되는 유세 현장마다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멜로디와 리듬이 있으니 노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세장에서 틀어놓는 음악들은 가슴을 몽글하게 하는 감동이나 추억을 불러오는 가슴 떨림 하나 없는 소음과도 같다. 섬기겠다는 마음조차 없는 듯 무식하게 패는 도끼소리만 같은 노랫소리에 마음이 아프다. 박자가 있는데 흥은 없고, 멜로디는 있는데 감동은 없는 유세 현장의 노래와 배주 한 단을 외치는 리어카장사치의 깨진 메가폰 소리같은 연설은 초등학교생들의 웅변대회의 진지함조차 없는 싹싹들의 위장된 날개짓만 같아 그 공허함에 가슴이 슬프다. 대통령이 부활주일을 트랜스젠더 기념일(Trans Visibility Day)로 선포했다는 소식은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는 찢어지는 통증처럼 들려왔다.

우리의 시대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대선을 앞둔 미국이나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우리에게 소중한 이 두 나라의 모습이 코리아-어메리칸인 우리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음악이 살아나면, 아니 살아있는 음악이 들리는 유세장이면 좋겠다. 격조있는 풍자와 위로의 선율 속에, 희망을 품은 심장을 쿵쿵거리게 하는 박자와 여아가 화음을 이루어내는 그런 음악은 없을까?

작년 봄, 80세가 넘는 폴 사이먼은 'Seven Psalms(일곱개의 시편)'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은유적인 표현의 가사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폴 사이먼은 "아니다. 실제로 또렷하게 들은 말씀을 쓴 것"이라고 대답했다. "The Lord is my engineer/Lord is the earth I ride on..." 그는 '주님이 나의 엔지니어, 음반 프로듀서, 걸어다니는 길이요 대기 속의 얼굴'이라고 쓴 이 노래의 맨 마지막 줄에 '주님은... 살아남은 단순한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다. 여든 노인의 가수가 들었던 "들려온 그 말씀'이 성도들의 고백언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고, 남미에서는 수난의 십자가 흉내를 내고, 이민사회도 지역마다 연합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렸는데, 나이 든 가수의 진솔한 신앙고백 같은 순진함과 진지함을 찾기에 부족한, 또 한 번의 절기를 지낸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생 자체가 진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겸손한 섬김과 거룩한 분노 그 어느 것에도 품격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품격'이 되기를 바란다.

djlee7777@gmail.com

카이사르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2면에서 계속)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의 원본 원고와 우리 손에 들린 가장 초기 원고 사이의 간격은 무려 800년 이상이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원본 사본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한복음 사본 조각 사이의 간격은 고작해야 50년이다. 신약학자 대럴 북의 결론이다. "복음서는 예수와 카이사르에 관해 출처 간격의 증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어떤 고대 기록과 비교해도 뛰어나다. 고전과 카이사르 연구에 효과가 있는 연구 방식을 예수의 기록에

적용한다면, 예수의 기록은 신뢰성이 탁월하다."

3. 두 숫자의 비교

법정에서 믿을 만한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사본도 많을수록 좋다. 아무리 신실한 증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보지 못한 세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또 봤다고 착각하는 세부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증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주변적인 세부 사항에는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의 요지는 분명해진다. 신약성경 사본의 수를 다른

고대 문서와 비교하면 신약성경이 가진 역사적 증거의 우월성이 명확해진다. 신약성경은 다양한 부분을 망라하는 23,986개의 사본을 가진 것에 비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의 경우에는 사본이 채 열 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숫자의 차이이다.

신약성서 학자 덴 윌리스는 현존하는 신약성서 사본들을 모두 합쳐서 쌓으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4개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조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고대 그리스 작품의 경우에 모든 사본을 다 쌓아도 높이가 1미터를 조금 넘을 뿐이다.

4. 두 동기의 검토

원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재생산 기록이 많더라도 작자가 진실을 보고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날조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동기는 두 가지이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또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플루타르코스 시대에 카이사르 암살에 관한 이야기는 널리 받아들여졌다. 플루타르코스는 자신의 평판이나 사회적 지위에 해를 끼칠지 모를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글을 전혀 쓰지 않았다.

(10면으로 계속)

Exclusive Offer Available at Flushing, Fort Lee, Jericho, and Palisades Park Branches!

11 Month Certificate of Deposit

5.25% APY*



thebankofprinceton.com | 609.921.1700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Promotion available at Flushing, Fort Lee, Jericho, and Palisades Park branches ONLY. Offer valid on an 11 Month CD with a minimum opening deposit of \$500 per tax ID. Once the initial 11 Month CD time has elapsed, the CD will roll over for an additional 11 Month CD at the prevailing interest rate. This will continue until customer notifies the Bank within ten (10) days of maturity date. Promotion begins at 9:00AM EST on January 8, 2024;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Early withdrawal penalty may apply; fees may reduce earnings. Other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저희 프린스턴 은행은 한인 고객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자 및 예금 상품 안내를 포함한 궁금하신 사항은 www.thebankofprinceton.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문의는 플러싱·제리코·포트리·팔리세이즈파크 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르네상스 메디치가를 일으킨 코시모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 가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구성원 중,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하게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한 국가가 망하는 길로 가느냐? 흥왕하는 길로 가느냐의 변곡점은 훌륭한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존재하느냐로 구분된다.

로마제국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5세기 시대의 통치자들은 놀랍게도 훌륭한 황제들이었

다. 다섯 황제들의 특징은 모두 뛰어난 부하를 양자로 삼아 대권을 물려주었다는 점이다.

나라가 평안하고 국력의 신장을 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훌륭한 지도자의 출현이다. 350년 동안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메디치가의 종언도 뛰어난 후계자의 실종 때문이었다. 뛰어난 지도자,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은 기존의 막강한 가문들을 제치

고 일어난 무명 인사 같은 존재였다. 어떻게 전혀 알려지지 않던 평범한 가문이, 강한 가문들의 틈에 고개를 들고 서서히 권력을 휘어잡는 자리로 세력을 뻗어갈 수 있었을까?

메디치 가문은 단에서 주는 의미처럼 의사? 혹은 약사로부터 출발했는지 모른다. 당시의 의사가 머리도 깎아주었기에 이발사 출신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사업수완이 좋았던지 양모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양모는 잉글랜드가 본

산이었기에 거기서 양모를 수입하여 플랑드르(벨기에)에서 실을 만들어 무역하는 일을 피렌체 사람들이 담당했다. 그런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메디치 가문은 은행업에까지 손을 뻗었다. 그런 식으로 큰돈을 벌었다. 그런데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큰돈을 벌게 되면, 보통은 달라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비싼 외제 차를 굴리며 거만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메디치가의 코시모(Cosimo De Medici 1389-1464)는 보통 부자들이 취하는 삶의 패턴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현대도 1400년경의 코시모가 취했던 길을 걷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이 즐겨 타는 럭셔리한 마차나 고급스러운 말 대신 서민들이 이용하는 나귀를 탔고, 시내에서는 항상 걸어 다니는 대신 교육과 예술과 건축에 아낌없이 후원했다. 그의 가족 교회당 벽면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코시모가 나귀를 탄 모습이 그려져 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부를 시

민들을 위해 후원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절제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되고 존경심을 느끼게 만든다. 지도자가 이런 면을 주목한다면 이 시대에도 군중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서 시민들과 항상 통로를 열어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가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문제를 꼭 해결해 주었다고 한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는 야심을 품고, 백성들을 유혹했다. 즉 송사를 위해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무슨 일로 들어왔느냐고 묻고는 하소연을 들어보고는 네가 옳다고 하면서 그 문제로 송사해도 해결될 수 없음을 완곡하게 말하고, 그 이유를 왕의 무관심과 무능함 때문으로 돌렸다. 은근히 부왕 닮은 이제 너무 늘어 총기를 잃어버렸고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수법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가 있는 간교함의 태도이다. 메디치가의 코시모는 다른 어떤 야심을

숨기고 행한 일이 아니라, 온전히 자발적 행동이었다. 이런 행동들이 시민의 환호를 받았고, 절대적 지지를 받는 동기가 되었다.

그에 비해 당시 피렌체의 유력한 알비치, 스트로치, 피치가문의 사람들은 전혀 달랐다. 마땅히 자신들은 귀족이기 때문에 서민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산타마리아노벨라 성당에서 행하는 축하 행사는 세가문만 참석하였다. 일반 시민들은 참가할 수 없었다. 고로 시민들과는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코시모는 산마르코 수도원을 막대한 돈을 드려 수리한 후, 피렌체 시민은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런 행동들은 시민들의 절대적 후원을 받았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는 지름길이 되었다. 당신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일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존경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한일철 목사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오늘날 한국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희망과 꿈도 없이 매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희망을 가질 동기부여가 사라진 것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 젊은이들 중에 한국에 제 14대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기록 전시관에 가서 큰 희망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기록전시관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학 성적표가 붙어 있는데, 4년 동안 A는 두 개 밖에 없고 온통 B, C, D로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곳에 방문했던 젊은 청년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그 초라한 성적표로 인해 큰 희망을 갖는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분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니 기록전시관을 방문한 젊은 청년들의 마음에는 '내가 못할게 뭐있어,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삶에 희망의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때론 다른 이들의 실패를 통한 성공이 나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주어 세상을 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일어난 나의 스토리가 다른 이들에게 삶에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동기부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매일 희망을 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사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매우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남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고 그들이 죄에서부터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징계로 하나님은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사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아닌 절망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

람들의 삶은 피곤하며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도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준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환이 없으시며”(사 40:28). 하나님께서 인간과 비교하여 사용하신 단어들입니다. 그것은

치로독 심한 노동을 한 결과 기진맥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일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조차 쉽게 넘어 집니다.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믿음으로 너그러이 이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합니다. 마치 날지 못하고 죽어가는 독수리 처럼 말입니다.

어느날 짧은 영상을 보았습

날개를 펴고 저 멀리 하늘로 날아 올라갑니다.

분명 그렇게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독수리인데 왜 여태껏 날지 못했을까요?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하늘의 창공을 날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행하지 못했던 네 마리의 독수리와 같은 처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그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에

렇다고 해서 아무나 새 힘을 얻거나 준비하지 않거나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심한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과 주님만으로 소망 삼는 자들만이 새 힘을 얻어 준비하고 피곤치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했던 말도 같습니다.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히 12:2).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오래 전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간신히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매일같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은혜 가운데 살았어도 올해는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리의 독수리들은 원래 창공을 훨훨 날던 독수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약에 중독되어 큰 날개를 접고 힘없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독수리들이 예전에 날지 못했던 독수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던 독수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로 우리는 결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한번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에게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의 날개를 펴서 힘차게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2년간 로마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은 바울은 그 옥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행 4:13). 그는 갇힌 감옥에서도 새 힘을 공급받아 믿음이 충천했습니다. 네 곳에 편지를 보냈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옥중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삶의 동기부여를 받고 힘차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hanusa1962@gmail.com

무엇으로부터 삶에 동기부여를 받는가?

이사야 40:28-31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는 회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께 원망하며 질문합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다 하느냐"(사 40:27).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능력과 우리 연약한 인간을 대조시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절대로 피곤하거나 준비하지 않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임을 가르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

기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준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환이 없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다는 단어들입니다. 반면에 다름 구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달리 피곤하고 준비하고 무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환이 없으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사 40:29)

사람들은 저마다 준비하고 피곤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비'하다란 뜻은 '힘에 부

다. 농약에 중독되어 날지도 못하던 독수리 네 마리를 충남 서산에서 발견한 후, 치료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뉴스였습니다. 구조될 때 독수리들은 날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경계했으며 그냥 그러다가 죽을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독수리들을 구조하여 끊임없이 돌보아주고, 치료하여 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하였습니다. 구조대는 그 독수리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날을 정하고 독수리들을 작은 케이지에 넣은 후, 들판으로 갑니다. 독수리 네 마리가 각각 갇혀 있는 작은 케이지의 문을 여니 독수리들이 성큼 뛰어 나와 곧장 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서산에서 발견한 후, 치료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뉴스였습니다. 구조될 때 독수리들은 날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경계했으며 그냥 그러다가 죽을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독수리들을 구조하여 끊임없이 돌보아주고, 치료하여 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하였습니다. 구조대는 그 독수리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날을 정하고 독수리들을 작은 케이지에 넣은 후, 들판으로 갑니다. 독수리 네 마리가 각각 갇혀 있는 작은 케이지의 문을 여니 독수리들이 성큼 뛰어 나와 곧장 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분의 공급으로 인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캘리포니아 자녀 살리기” 청원서 서명운동, 5월까지 연장! 끝나지 않은 법적 싸움을 위해 계속 기도 요청!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 운동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통과 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절차:

1. 정확히 유효한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자들의 총 546,651 명의 서명이 “통과” 되어, 11월 투표에 공식 법적 Measure 이나 Proposition으로 상정이 되면

2. 11월 투표 때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Protect Kids of CA ACT 2024 발의안에 YES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만일, 투표결과에 충분한 유권자들의 지지(YES)투표가 나오면, 공식 법적인 “주민 법” 이 되어서, 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중요!! 저희단체가 지난 13년간의 이런 서명운동에 미국단체들과 앞장서서 해본 경험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정부는 여러 이유들로(어떤 때는 억측으로), 무효화 시키는 서명들이 매우 많

(크리스마스, 연말, 새해)이 한참일 때, PKCA 발의안을 허락해줌으로, 4월 중순까지 정부가 요청하는 숫자의 한배 반 이상을 받아서 2024년 ballot 에 올린다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서 한 달 이상을 실제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의안의 내용에 가장 많은 에너지와 손발이 되어 서명을 받으러 다닐 사람들은 주로 크리스천들이고 교회라는 것을 그들과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소식은, 여러 까다로운 협상 끝에, PKCA 청원서 서명 마감일이 4월 18일에서 5월로 연장될 가능성은 확실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날씨는 연장이 되어도, 중요한 마지막 협상까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갈때 병원, 마켓, 학교, 미팅, 등등 어디를 가든, #1에서 준비한 package 를 가지고 다니면서 줄 수 있습니다.

3. 서명 받은 사람에게 만들어놓은 package 나눠주면서 다음처럼 말해주기. 1) 80만개 서명을 받아야 우리 자녀들 살릴 수 있으니, 아는 가족, 친구들에게 매일 2-3명에게 받아보시면, 한달동안 100명 받을수있어요. 꼭 받아서 flyer에 있는 TVNEXT주소로 보내주세요.

2) 서명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package 들을 꼭 나눠주고 그들에게도 꼭 서명 받아서 TVNEXT 주소로 보내라고 하세요' 라고 가르쳐 주세요.

4. 매우 중요!! 모든 한국어 자료들은 TVNEXT 에서 만든 공식 자료만 사용. (무효화를 막기위함). 홍보영상, 서명방법 영상 및 중요한 자료들은 공식, 법

선택이 아닌 자녀들을 지킬 필수적 서명 운동!

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적어도 70만에서 80만개를 받는 것입니다.

Protect Kids of CA 서명운동 - 중요 업데이트! 그동안, Protect Kids of CA ACT(PKCA) 본사 경영진 리더십 팀은 The Liberty Justice Center 와 PKCA 본사 팀의 변호사들을 통해 3번에 걸쳐 캘리포니아 법무부장관 (General Attorney) 인 Rob Bonta 를 소송하고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도 소송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청원서의 발의안 왜곡된 TITLE (법안 이름) 때문입니다.

PKCA 경영진 변호사들이 발의안을 제출 했을 때, Protect Kids of CA ACT 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발의안 Title 은 “Restricts Rights of Transgender Youth” 로 캘리포니아 AG 가 적어 보냈기 때문입니다. 매우 왜곡되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먼저 갖게 만드는 Title일뿐 아니라, 처음에 이 발의안을 제출한 저희 쪽 경영진 변호사 팀의 요청이 부당하게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Protect Kids of CA ACT 발의안의 청원서 제출 마감일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법(policy)에 의하면, Protect Kids of CA ACT (PKCA) 청원서 서명을 받는 날짜는 캘리포니아 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정부는 가장 바쁜 holiday season

특별히, 지금 나온 왜곡된 PKCA Title 은 우리 쪽 변호사들이 이미 3번씩이나 소송을 통해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과 캘리포니아 정부는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다음주 4/19일 날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들어온 숫자:

이미 셀 수 없이 들어오는 청원서들이었지만, 특별히 지난주, PKCA 미국본사에 들어오는 청원서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서 (하루에 7000에서 만 오천 개까지 들어오는 날들도 있었음) 저희 경영진 리더십에서는 카운트를 할 수 없었으며, PKCA를 위한 설명회 및 서명 행사들로 매우 바빴습니다. 그동안 모여진 숫자들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절대로 맘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유효한 서명숫자만 채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제 2의전략은, 굵하기 전략!!! 한명당 100명씩! 매일 2-3명씩 받기!!

1. 올바른 자료들로 사람들에게 나눠 줄수있는 package 만들기 :

(한어/ 영어: Flyer, Do's & Don'ts, Cities & County list, 서명 샘플용지, 청원서 -모든 자료들은 반드시 TVNEXT 에서 공유하는 공식 자료만 사용하세요. 무효화를 막기위함)

2. 서명 받기 - 교회, 단체 차원에서

적내용도 이미 한글로 정리/제작하여 만들어놓았기에, TVNEXT.org 에 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얼마나 있나요?

LA county 에만, 한인 유권자 등록한 분들이 거의 10만 명이 거주하고 OC 에는 6만 명 그리고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21만 명의 한인 유권자 등록자들이 있다는 리포트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몰라설 곳이 없다!! 캘리포니아 공립교육의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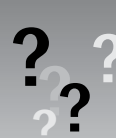
이 발의안을 공동 제작한 ErinFriday(에린 프라이데이)는 평범한 soccer mom이자 변호사로서, 평생 민주당만 뽑았던 비신자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이 발의안을 저희 쪽 변호사들과 공동 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 역시, 공립학교의 트랜스젠더 세뇌교육으로 자기 딸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통과된 AB665, AB223, AB1078, AB5, AB230, AB352 등의 악법들 외에도 계빈 뉴섬 주지사가 통과시킨 9개의 친 동성애 법안들 등 TVNEXT.org에서 참조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다음세대를 지킬 사람은 여러분, 우리들뿐입니다.

문의는: TVNEXT.ORG@gmail.com 으로 하세요 ProtectKidsofCAACTLeadershipCommittee, 미본사 김태오 목사, 새라김 사모드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봉사하다가 이번에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피택된 사람입니다. 저는 훌륭한 교회일군이 되고 싶습니다. 안수집사로 갖추어야 할 자격과 조심할 점은 무엇인지요?

- 로마서에서 SAM

안수집사

A: 초대교회에는 세 부류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사도들인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합니다. 요즘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둘째가 제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그룹이 등장합니다. 7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7명을 초대교회의 안수집사라고 하나 행 6장을 보면 솔직히 여기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말도 없습니다. 성도와 목회자 간의 영적인 중간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안수집사라고도 부르고 장로들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의 중간 지도자들의 수준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7명의 사람들을 세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협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7집사는 거의 전임이었습니다. 전임이라면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것 외에도 온전히 하나님 일에 생명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최고의 우선권을 두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수집사가 되면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기준은 믿음 충만입니다. 교회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보통인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중간 지도자는 믿음이 큰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기준은 성령충만입니다. 개인의 기능이나 능력과 학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은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충만한 사람 즉 영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는 이성에 끌리는 사람과 성령에 끌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도자는 성령에 끌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기준은 지혜충만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지혜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사리를 바로보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교회 안에서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주장을 꺾을 줄 아는 사람, 지도자의 말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번째 기준은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인기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과 인품이 공동체에서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말합니다. 여기의 칭찬받는 사람이란 헬라어는 “마르티노메노오스(Being well attested)”로서 순교자들, 증인들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정한 칭찬은 희생적일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것을 자기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순교자처럼 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다. 교회와 교인 사이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까지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 주의 사역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니콜라에 대해서는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개종자로서 시리아의 안디옥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니콜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콜라당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니콜라가 계시록의 니콜라당의 창시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공명의 선택은 결코 완벽한 선출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집사 중에도 교회를 해치는 인물이 예상외로 나올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교직자들을 선출할 때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p>동부(NY,NJ)교회</p>		<p>뉴욕목양장로교회</p> <p>담임목사: 허진욱</p> <p>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세례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 357-9199 12-25 Clintonville St, Flushing,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p>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02:00 영양예배: 오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례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 265-2584 www.kbc.org 14 Green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갯세마니교회</p> <p>담임목사: 이저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 (월-토)</p> <p>Tel: (516) 342-2004 www.gcmny.org 20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새사람교회</p> <p>담임목사: 이종현</p> <p>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 (Fax: 경음),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양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준성</p> <p>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 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p>	<p>뉴욕센트럴교회</p>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 (월-금) / 6:00 (토)</p> <p>Tel: (516) 387-9940, 9942(EM),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욕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학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p> <p>Tel: (718) 706-0100, www.nyc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p>	<p>뉴욕효신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평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15 초대예배: 오전 1:30 세례기도: 오전 5:55 (월-토)</p> <p>Tel: (718) 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p>	<p>뉴저지성도교회</p>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창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p> <p>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East Meadow, NY 11607</p>
<p>베이사이드 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종식</p> <p>강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양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 예배: 오전 5:45 진교인특별선배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9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St,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p>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세례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 513-1351, chongsunwon@yah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새벽별주님교회</p>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p>은누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문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세례기도회: (월-토) 오전 6:00</p> <p>Tel: (845) 359-1458, http://onunuri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p>퀸즈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www.kapc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93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선교!</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p>하와이 및 북미 지역</p>		<p>밴쿠버빌라델리아교회</p>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6:00 (월-금), 2:00 (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셋째, 넷째, 다섯 번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영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p> <p>Tel: (604) 584-5780, www.pcc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봉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n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브라질 서울교회</p>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창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P 01528-010</p>	
<p>아르헨티나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성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 114-631-1788, AV. CARABOBA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시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p> <p>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p> <p>담임목사: 유문권</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안교회</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 (화-토)</p> <p>Tel: (808) 585-1859 1130 N. Linnit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영어) 주일영양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교회</p>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p> <p>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 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와 선교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대표)



마니또

“마니또”라는 말을 사전에 서는 매우 가까운 친구, 친밀하다’의 뜻을 갖는 스페인어 ‘manito’에서 유래한 것으로 특히 ‘멕시코에서 친구 간에 표시되는 친밀감이나 매우 가까운 친구를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비밀 친구를 의미하는 언어로 제비뽑기나 또는 나 스스로 선정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거나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의미 있는 놀이의 일종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크게 유행하면서 지금도 종종 교회에서 활동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풍습이긴 하지만 이란어로 ‘순교의 땅’이란 의미의 마슈하드 지역에서는 다양한 좋은 재료와 향료들을 넣어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직접 끓여 만든 음식(죽)을 여러 이웃이나 평소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가리켜 ‘나즈리’라고 합니다. 비록 이슬람 문화권의 전통으로 정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날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사실이 귀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

상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나누어야 하지만 구제하는 날을 따로 정하기보다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만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날로 각자 스스로 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친절과 나눔과 베푸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시지만 예수님 없이 세상을 마친다면 영원한 불못의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이웃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 주셨

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25:35-40). 잡인 기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 19:17).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험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약2:15-18). 요즈음은 육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 이상으로 정신적 불안감 속에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적

지 않습니다. 주님을 대신해 그들의 이웃과 벗이 되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딤후 6:18-19).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행 20:35).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알게 모르게 선을 베풀 나의 마니또는 누구인가요?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주일 쉬고 매장수 적는데도 KFC 이긴 이 치킨 식당

주일마다 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기업 목표로 운영되는 미국 프랜차이즈 기업 칩필레(Chick-fil-A)가 최고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경쟁이 치열한 패스트푸드업계에서 괄목할만 한 성과로 업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칩필레는 2023년 215억8000만달러(약 29조262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 188억1000만달러(약 25조5064억원)보다 14.7% 증가한 수치며 2021년 150억달러(약 20조3400억원)보다 43% 이상 증가했다고 미국 식품산업을 다루는 전문 매체 ‘네이션스레스트라망스(NRN)’가 시장 조사 기관 ‘테크노믹’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NRN은 “칩필레는 경쟁이 치열한 QSR(퀵서비스레스토랑) 치킨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왔다”며 경쟁사인 파파이스(약 10%)와 KFC(1.7%)의 성장률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고객 한 명이 매장에서 쓰는 금액은 2대 경쟁사인 파파이스(12.30달러)와 KFC(12.65달러)보다 13.95달러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매장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칩필레의 선전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했다. NRN은 “2023년 기준 칩필레 매장 수는 2964곳으로 파파이스 3051곳, KFC 3791곳보다 적다”며 “특히 일요일에 문을 닫는 정책을 고려할 때 이 매출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칩필레가 최근 몇 년부터 패스트푸드의 치킨 부문을 넘어 맥도날드와 전체 패스트푸드업계의 경쟁사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대째 이어지는 칩필레는 설립부터 신앙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가족은 독실한 침례교인이며 이들은 예배를 위해 주일 모든 매장을 닫는다. 칩필레 설립자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13년 회장직을 물려받은 뒤 2021년 아들에게 이를 물려주고 이사장직에 오른 덴 캐시 이사장은 지난해 초 미국 CEO 잡지인 ‘치프 이그제큐티브(Chief Executive)’와의 인터뷰에서 캐시 이사장은 사업의 성공보다는 이를 통해 정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관리 하고 싶다”며 “우리는 죽을 때 기업을 갖고 가지 않는다. 잠깐만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창조주를 인정하고 겸손함을 갖자” “기꺼이 순종하자” “믿음의 경험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 하려고 노력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칩필레의 회사 공식 문서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서 충실한 정치가가 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칩필레를 접하는 모든 이에

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규정돼 있다.

교황청 ‘대리모·성전환 수술, 인간 존엄성 침해’

교황청이 성전환 수술과 대리모에 대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지시간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교리부의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해당 내용이 담긴 ‘무한한 존엄성’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황청은 “성적인 차이는 생물학적이 아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젠더 이론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생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 즉 성적 차이를 부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은 대리모와 아이 모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언문은 교황청이 동성커플 축복을 지지하는 문서를 낸 지 4개월 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2월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커플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다만 이는 여전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었다.

‘전도 불’ 꿈꾸는 목회자의 필수 요건

“목사가 정기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이 전도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델이 돼야 한다.”



갈수록 전도가 어려운 시대, 전도하는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의 최우선 실천사항으로 ‘술선수법 전도’가 꼽혔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미치는 무유형의 영향이 큰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전도에 대한 마땅한 모델이 드물기 때문이다.

9일 미국 기독교 커뮤니티 사이트인 처치앤서스(Church Answers)에 따르면 기독교 작가이자 사우스이스턴침례신학교 교수인 찰스 에드워드 톨리스 은퇴 목사는 최근 ‘목회자의 리더십이 전도하는 교회를 만드는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톨리스 목사는 “목회자가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면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기에 목회자가 열정 있게 설교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지만 반대로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목회자가 복음전파에 관심을 갖고 교회 안팎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전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 “상당수 교인들은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잃고 안주하는 때가 있다”면서 “이때 목회자의 격려는 전도 열정을 불어넣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목회자가 복음 전파의 결실에 대해 직접 간증하는 기회를 갖는 것과 함께 부교역자와 교회 직원 등도 전도 공동체로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톨리스 목사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들을 준비시켜 함께 전도에 나설 때 이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확산 초읽기... “이란, 이르면 이번주 보복 공격”

이란이 시리아 주재 영사관을 폭격한 이스라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대리 세력을 동원한 보복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만류에도 가지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 의지를 고수하며 “날짜를 정했다”고 말했다. 경고음을 울렸던 중동 확산 위기가 본격적인 초읽기에 들어갔다.



CNN은 8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리 세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공격은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작될 것”이라며 “이란이 무인기·미사일을 활용한 대규모 공격을 일제히 가하도록 여러 무장단체에 요구했다는 것이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대리 세력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 정부군, 이라크·시리아 민병대 등이다. CNN 소식통은 “그들(이란과 대리 세력)이 공격 준비를 마치고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이 끝나는 10일 이후 공격이 시작될지를 놓고서는 미 정보당국 안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란 정부가 교전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자국을 공격할 명분을 미국과 동맹국들에 주지 않길 원한다”며 “하지만 대리 세력이 이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시설이 공격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친이란 무장단체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경고에도 이스라엘은 하마스 잔당 소탕을 이유로 라파 진군을 준비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후전 협상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우리는 최우선 과제인 인질 석방과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라파에서 테러 부대를 제거해야 한다. 이 작전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날짜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라파의 피란민은 14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면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반대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간인은 물론 이스라엘의 안보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접경에서 헤즈볼라와 국

지전을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스라엘 전투기가 간밤 레바논 남부 마을을 공격해 헤즈볼라 야전사령관이 사망했다”는 로이터 보도에 대해 “헤즈볼라 정예 라드안 부대 사령관 알리 아흐메드 하신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저 달에 닿을 만큼 사랑해” ... 美 개기일식 속 수백 쌍 웨딩마치

“Will you marry me?(나랑 결혼해줄래?)” “Yes!(좋아!)” 달이 해를 점차 가리고 주위가 점점 어두워지자 곳곳에서 벅찬 듯한 목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8일 오후 미국 하늘을 까맣게 물들인 개기일식이 시작되자 수백 쌍의 커플들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 현지 매체는 미국 남부 아칸소주 러셀빌에서 대규모 합동 결혼식 이벤트 ‘일로프 옛 더 이클립스(Elope at the Eclipse)’가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일로프(Elope)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도망가는 것을 뜻한다. 주최 측은 지난해 7월부터 “저 달에 닿을 만큼(to the moon and back)” 사랑에 빠진 커플들에게 행사를 홍보해왔다. 이들은 결혼식 주례와 음식, 꽃 등은 주최 측에서 준비할 것이며 참여를 원하는 커플들은 축제 참여 티켓과 결혼 증서, 결혼식에서 입을 옷만 지참해 오면 된다고 홍보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총 358쌍의 커플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다. 행사에 참여한 카일리 어거스틴과 마이클 라이스는 지난 2017년 개기일식 때 첫 데이트를 한 이후 7년 만의 개기일식 날 러셀빌을 찾아 결혼식을 올렸다. “너는 나의 태양이고 달이고 별이야” 주위가 깜깜해지기 시작하자 카일리와 마이클은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하며 반지를 교환했다. 이날 결혼한 또 다른 커플 카를로타 콕스와 매튜 홀로웨이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결혼식”이라고 NYT에 말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합동 결혼식이 열렸다.

ABC방송 지역 채널인 13actionnews는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 티핀에서 열린 합동 결혼식을 보도했다. 이날 티핀에는 70쌍이 넘는 커플들이 개기일식 아래 결혼하기 위해 모였다.포스트리아에서 온 제니 해리스와 바트 롬바디는 “완벽한 개기일식이 이루어진 날에 결혼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완전히 독특한 이벤트”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은 결혼식 날짜로 선호되는 날은 아니다. 그러나 NYT 보도에 따르면 결혼식 서비스 웹사이트 ‘더 노트(The Knot)’에 전년도 결혼식 등록 건수의 2배가 넘는 약 750건의 결혼식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북미 개기일식은 7년 전 개기일식보다 더 넓은 곳에서 더 오랫동안 관측 가능해 큰 화제를 모았다. 글로벌 경제분석회사 페리먼그룹은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이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이동함에 따라 최대 8조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신학 비판 (6)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II. 볼트만의 양식비평 (Form Criticism)과 비신화화 (非神話化/demythologization) (2)

볼트만에 의하면 신약성경은 단순히 저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만난 사건을 기록한 인간적인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당시 사용할 수 있었던 용어와 개념을 사용했으며 (terms and concepts they had available to them at the time), 그러한 용어와 개념들은 고대 사회의 신화로 된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이다. 볼트만은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반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이 비신화화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즉, 신약에 신화적인 용어로 기록된 기적적인 요소가 제거되어야 그 사건의 보편적인 진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신약성경의 동정녀 탄생,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오병이여의 기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 심지어 예수의 부활까지의 기적적인 기록 가운데 신화적인 요소들을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볼트만이 신화라고 부르는 기적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몸의 부활, 등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 복음의 핵심의 사건들이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고전 15:14),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검증 가능한 사실임을 주장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할 만에 다시 살아나서, 계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전 15:4-8).

간하배 교수는 Contemporary world theology, pp.36-38에서 다음과 같이 비신화화 신학을 성경적으로 적절하게 비판한다.

(1) 비신화화는 (Demythologization)는 신정통주의와 같이 실존주의 철학을 기본으로 한 사상이며, 신약성경과는 전적으로 모순된다 (radically at odds with the New Testament itself). 실존주의 철학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다. 타락한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의 진실성을 왜곡시킨다. 신약의 중심은 하나님이 시지 인간이 아니다.

(2) 비신화화는 역사에 근거한 기독교의 기초를 파괴시킨다. 볼트만의 비신화화 신학은 기독교를 신화에 기초한 종교로 전락시켰다. 헤르만 리더보스(Herman Ridderbos)는 "볼트만의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지 아니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제 삼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다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지 않으시리라" 하였다 (리더보스의 글을 간하배 교수의 책에서 재인용 하였음 Harvie Conn, op. cit. 37).

(3) 본래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자체로 확증되며, 그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볼트만은 역사적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기독교의 발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예수님의 짧은 공생애는 기독교를 확립시키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며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말

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위에 세워졌고, 사도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전했다.

(4) 비신화화는 신약의 모든 기적들을 신화화 주장한다. 이것은 볼트만의 신학이 철저히 인간중심 (radical anthropocentric)임을 말한다.

(5) 볼트만의 비신화화 신학의 대전제는 현대인들에게 기적을 전하(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같은) 믿지 아니하고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신약 본문에서 기적과 같은 신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현대인들이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이다. 복음과 성경 말씀을 받아 드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볼트만은 인간의 타락성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를 대적한다.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전 2:1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4-5).

III. 폴 틸리히의 존재의 신학 (Theology of Being) (1)

폴 틸리히 (Paul Johannes Tillich, 1886-1965)는 독일에서 태어나 루터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도 루터교 목사이다. 폴 틸리히는 베를린 대학 (University of Berlin), 튜빙겐 대학 (University of Tübingen), 할레 대학 (University of Halle-Wittenberg)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브레슬라우 대학 (The University of Breslau)에서 Ph.D. 학위를 받고, 독일 마부르크(Marburg)대학교 신학부의 조직신학교수로 청빙을 받았고, 여기서 철학자 하이데거와 신학자 볼트만을 만났다. 히틀러 등장 이후 교수직을 박탈당했고, 1933년 라인홀드 니버의 초청으로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했다. 그리고 나중에 시카고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의 여러 곳에서 강의했다.

틸리히의 신학의 특성을 경계선상의 신학 (Theologie auf der Grenze/theology on the border)으로 칭했다. 왜냐하면 틸리히는 신앙과 회의, 철학과 신학, 유럽과 미국, 기독교와 문화 사이들을 넘나들면서 신학의 체계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틸리히의 신학 방법을 상관방법(method of correlation)이라고도 불린다. 틸리히는 신학의 출발을 성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존적 질문에서 출발해서 신학적으로 대답하는 상호의존적이다.

스탠리 그렌즈(Stanley Grenz)와 로저 올슨(Roger Olson)의 책 20th Century Theology에서 폴 틸리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틸리히의 신학적 기여는 전반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바르트의 것과 비슷하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정반대다. 바르트는 말씀을 실존적 상황에 적용했지만 그러나 폴 틸리히는 바르트와는 달리 현대 세속 철학에서 (실존적 상황) 출발하며 기독교 신학적 (말씀)으로 대답하여, 철학과 기독교 신학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 (positive correlation)를 추구했다" (114).

그러나 폴 틸리히의 이러한 신학의 변증적인 방법때문에 신학적 교리나 성경적 진리에서 멀리 벗어났고, 기독교 (성경적)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어떤 사람들은 틸리히를 무신론자라고까지 비난했다.

폴 틸리히 신학의 특징들을 살펴보자.

1) 그의 신학의 방법은 변증적 (dialectic)이다. 틸리히의 신학적인 전제는 동시대의 실존적인 상황 (Contemporary existential situation)에게 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틸리히의 신학 특징은 상황대응형이다 (Answer-to-situation type of the theological

work). 이것은 존재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이다 (creative interpretation of existence). 상황은 인간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촉발시키며, 기독교 신학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한다. 이것이 틸리히의 신학의 방법이다.

틸리히에게 있어서 '상황'이란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들과 관심들, 즉 "그들이 자신들의 실존에 대한 해석을 표현하는 과학적, 예술적, 경제적, 정치적, 윤리적인 형식들"을 의미한다. 그는 근본주의 신학이나 '케리그마 신학'(신정통주의)을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신학들은 동시대 사람들이 직면한 상황의 역할을 무시한다. 동시대의 상황으로 부터 제기된 물음에 대답하기보다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마치 돌 던지듯이 일방적으로 던지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틸리히는 신학을 통하여 기독교의 메시지를 현대인들의 실존적인 상황에 적용시킨다.

2) 그는 기독교 메시지와 동시대의 문화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common ground)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틸리히의 변증적 신학은 기독교의 메시지와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동시대의 문화 사이에는 어떤 공통된 지반이 있음을 주장한다. 이것은 틸리히의 신학의 가정이다. 이러한 틸리히의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의 신학 체계 전체가 잘못되었다.

3) 틸리히는 그의 신학을 실존주의 철학위에 세웠다.

틸리히는 하나님을 "존재의 기본" (ground of being), 혹은 존재 자체라고 했다. 틸리히는 하나님은 어떤 사물(a thing)도 아니고, 어떤 존재(a being)도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신학적인 체계 위에(above) 계시며 그 너머(beyond)에 계신다" 주장한다.

하나님은 존재 이상이며 사물 이상이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요, 존재의 힘이며, 존재의 기초이다.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간주하는 것까지도 그를 피조물의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된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만큼 무신론적이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란 상대적 의미로서의 존재와 비존재, 유와 무, 긍정과 부정, 삶과 죽음의 개념들을 초월하는 근원적 '있음 (being)'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의미와 비존재의 위협에 처한 인간의 불안을 극복할 용기의 추구에 상응하는 무엇을 가리키는 인간의 상징적 표현이다. 틸리히는 하나님을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했다.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회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부: 오후 8:00 다민족찬양집회: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02-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집회: 오후 8:00 태양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845-0288, Fax: (215) 845-208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 (화):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화):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화):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화): 오후 1:45 1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p>	<p>보스톤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세례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영 아 베: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6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센터빌 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 (703) 581-9235, www.koreanccc.org 25454 Gum Spring Road, VA 20152</p>	<p>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아: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845-1512, Fax: (215) 845-9037 706 Wilmer Rd, Hershman,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전야회: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24(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941-4447, www.mcccov.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세례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laccnc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앙칼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소유한다 (Violent People Took Heaven by Force)

위대한 사람(Great Person)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을 사람에게 잘 전해 주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에게는 불같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썩어 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늘의 음성이 단절된 침묵의 시기였습니다. 오랜만에 참 선지자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위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송가 515장 2절에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마는 생명을 살렸어라"의 가사와 같이 미국과 한국과 세계의 목회자들이 세례요한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만을 담담히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신 18:20)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요한(John Prepared the Way for the Messiah) 세례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마 11:9) 세례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인 이유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마 11:10) 메시아 예언을 한 대표적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세례요한이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킨 선지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일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입니다. 세례요한이 내내 강조한 것도 "골 내 뒤에 오시는 그이러 나는 그의 신 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요 1:27)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요 3:30) 세례요한은 평생 오직 예수님만 높이려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 켈피스는 여러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우리 같이 재빨리 "주여!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택을 주십시오." 혹은 "주여! 내 몸이 너무 병들었는데 빨리 고쳐 주옵소서!" 혹은 "주여! 사업이 더 크게 번창하게 하옵소서!"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 켈피스는 먼저 부귀영화도, 건강도, 물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저는 예수님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송가 가사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예수께 고정하십시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히 12:2)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의 위대성은 오직 메시아를 바라보며 준비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요한(John the Little)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위대한 세례요한보다 큼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마 11:11)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은혜와 행복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은혜에 비하면 단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데 그쳤던 세례요한보다 더욱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요한보다 더 크신 분들이십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온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소유한다.(Violent People Took Heaven by Force) 지금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천국은 믿음과 용기 있는 자들이 차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 11:12) 여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의미는 천국이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 의해 강탈당하거나 강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천국이 어떤 습격 때문에 어떤 성과 같이 빼앗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녀, 각종 죄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늘 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고 용기 있는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눅 10:13)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것이 세례요한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 침노하여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사월의 소고

갑진년을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사월이다. 세월의 흐름이 손 화살처럼 쩍짜다. 사역하다 보면 요일별로 심방 일정과 약속 시간을 잡기에 날짜보다는 요일 감각만 지닌 채 일주일을 또 한 달을 지내다 보니 사월이 눈앞에 성큼 다가와 버렸다.

사월이면 항상 생각나는 시가 있다. 아마도 눈치가 빠른 독자들은 눈치를 챘을 것이다. T.S.엘리엇의 연작시 황무지의 한 구절인 '사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구다. 그가 사월을 잔인하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의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1차 세계 대전 이후 황폐한 유럽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대한민국의 총선이 4월에 있다. 어릴 때 선거 시절이 되면 출마자들의 사진과 이력이 동네 벽에 군데군데 붙어있는 것을 보며 언젠가 나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꿈을 꾸어 적어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눈에 참 멋져 보였기 때문이다. 삶의 이력이 쌓이며 분별력과 판단력도 단단해진 요즘은 눈에 비치는 정치는 어릴 때 꿈꾸던 막연한 이상과는 달리 씩씩한 마음이 들곤 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실리와 정욕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겉으로는 나라 사랑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안으로는 여전히 명예와 권세를 걸러 쥐려는 탐욕이 들끓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기원전 4세기경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사람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아 등불을 들면 혹여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라고 말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 있게 이끌어갈 정치인다운 정치인들이 그림자.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참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모국의 정치가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모국을 떠나는 지도 삼십여 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로만 멀어졌을 뿐 항상 고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은 더 강렬해지는 것 같다. 오히려 타국에 거하다 보니 민족적인 정체성이 더 뚜렷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 앞이다. 한국의 4월이 잔인한 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yanghur@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es: 감사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단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동장로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스망교회, 세계선교교회, 살비지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지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평강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어린이처럼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

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은 모습일까? 어린이는 계산하지 않는다. 혹 계산하더라도 눈에 뻗어 보이는 계산만 한다. 어린이는 눈속임을 한다거나 말로 사람을 현혹하지도 않는다. 어린이는 이것저것 보지 못한다. 하지만 본다. 그리고 어린이는 물질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바로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뜻이 아닐까? 첫째 아이가 어린이였을 때 핸드폰 가게에 함께 간 일이 있다. 가서 아이를 옆에 의자에 앉히고 한참 새로운 핸드폰을

비교해 보고 있었다. 아이가 앉아 있는 의자 앞에 작은 티데이블이 있었는데, 그 티데이블 위에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이 한 가득 들어 있는 바구니가 있었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이 한가득 들어 있으니, 그것 밖에 보이지 않았는지, 그 사탕 바구니를 향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앉아 있는 의자 네 다리에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사탕을 집으려 하면 활수룩 의자는 뒤로 밀리니, 아이가 몸을 더 기울여서 사탕을 잡으려고 했다가는 정면으로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핸드폰에 정신이 팔린 아이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잠깐 고개를 돌려보니, 아이가 거의 떨어질 뻔한

상황이었고, 겨우 아이를 덩석 끌어 안았다. 물론 아이는 자기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다는 것은 알지도 못한 채 저 사탕을 갖고 싶다고 계속해서 팔을 뻗기만 했다. 10년도 더 지난 그 날의 사건을 생각하면, 자칫 아이가 다칠 뻔 했기에 소름이 쭉 끼치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아이가 사탕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들 듯,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물론 아이는 그렇게 사탕만 바라보고 가다가 다칠 수도 있지만, 아빠가 지켜준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다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픔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 천국에 이를 때까지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들고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비교하고, 재고 따지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 뿐이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wmlakim@gmail.com



새민음장로교회 창립 24주년 김정식 장로 임직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새민음장로교회 창립 24주년 김정식 장로 임직식

"늦깎이 장로의 빛나는 은사...다음세대 키우는 통로로"

올해 창립 24주년을 맞는 새민음장로교회(담임 이인승 목사)가 시무장로 임직식을 부활주일인 3월31일에 가졌다. 뜻깊은 자리에 휴스턴 교계와 한인동포사회에서 70여명이 참석하며 기쁨을 함께 했다. 이날 임직식에는 교계는 물론 한인 사회 단체장들과 휴스턴 고려대학동문회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늦깎이 장로의 출발에 진심어린 축하를 보냈다.

이날 시무장로로 임직하게 된 김정식 장로는 새민음교회에서 15년을 집사로 신앙생활을 해왔다. 늦은 나이에 시무장로로 마지막 신앙의 여정 정점을 향해 달려갈 주인공에게 많은 격려의 기도와 축하가 쏟아졌다. 1부 감사예배와 임직식은 PCA 한인남부노회 소속 목회자들과 한인목사회 등에서 순서와 진행을 맡았다. 이상도 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현 PCA

한인남부노회 노회장 석상은 목사(예담장로교회 담임)가 '바나바를 찾습니다'(행 11:19-26)로 설교했다. 석상은 목사는 반안나무와 바나나나무를 비교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재능과 은사를 통해 수많은 다음세대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바나바와 같은 일꾼, 그리고 바나나나무 같은 통로가 되어 주기를 기원했다. 2부 김정식 장로 임직식에서 피택 장로 서약과 교인들 서약, 장로안수식이 이어졌다. 이날 김정호 목사(한인장로교회 담임)와 김성호 목사(텍사스 기쁨의교회 담임)의 권면이 있었으며 유재송 장로(한인교회)와 안용준 변호사가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많은 축사와 격려에 김정식 시무장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나가겠다"는 대답으로 자신의 각오를 짚막하게 전했다. 김정식 장로의 둘째딸과 사위인 유현빈, 김주희의 축하송에 이어 전 총현장로교회 원로목사와 PCA-CKC 회장을 역임한 이은재 목사의 축도로 새민음장로교회 가 마무리됐다. (기사제공: 새민음장로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예배에서 최홍주 원로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에브리데이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주일예배 거행대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손창민 목사) 창립 25주년 기념주일예배가 7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손창민 목사 사회로 열린 11시 3부 예배는 유준용 장로가 기도했으며 사랑성가대 찬양과 소프라노 김희우 집사가 특송했다. 이어 에브리데이교회 25주년 특별영상이 소개되었으며 최홍주 원로목사가 '모이기에 힘쓰라(히 10: 19-2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홍주 목사는 "25주년 오늘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 개척부터 섬기면서 우리교회는 모이는 일에 열심이었다. 예배 한 번에 목숨 걸고 열심과 헌신을 다해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세대를 보면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배는 삶을 드러서 가는 것이다.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예배는 책임이나 의무가 아닌 지속적인 하나님과 관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

조했다. 최 목사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모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며 교회에 모였다. 어떻게 모여야 할 것인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하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부지런히 모여야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임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며 "모이는 것은 말세를 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마지막 세대다. 그래서 더욱 더 모여야 한다.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열심으로 모이기 힘쓰는 것인 만큼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최홍주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1부예배 시간에 김경태, 배순완, 정순권 집사가 명예장로로 추대되었으며 2부예배 교회창립 25주년 기념예배 시상식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라흠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제1회 라흠여성합창단 창단음악회

우편센터 푸른초장의 집 후원음악회로 열려

라흠여성합창단(단장 최수미, 지휘 강민석) 창단음악회가 7일(주일) 오후 6시 좋은비전교회(담임 최준우 목사)에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최수미 단장은 "라흠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음악회를 통해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강민석 지휘자는 "라흠여성합창단은 9년 전에 결성이 되었지만 이제야 창단음악회를 하게 되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따라서 저희 합창단은 항상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합창단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수미 단장 인사말과 개회기도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놀라운 주의 솜씨', '주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등 성가곡과 '첫사랑', '바람의 손길' 등 가곡을 불렀다. 이날 바이올린 스톱 황여주씨와 오렌지미션 남성합창단이 찬조출연하여 이날 음악회를 빛내주었다. 또한 이날 모인 헌금을 푸른초장의 집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비극의 소비자가 되지 말라

<1면에서 계속>

리얼 범죄 팟캐스트에 몇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가상 작업의 단조로움에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아드레날린 해독제이다. 가족과 함께 가치 있는 대화를 나누는 대신 인스타그램 릴(Reel)이 제공하는 정치 드라마의 토끼굴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마치 내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내 정신 건강과 내 공동체에 초래하는 피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정보 소비 행태는 주로 혼자 이뤄진다. 스크롤링은 굳이 육체를 갖춘 인간과 구원의 관계를 맺는 복잡하고 헌신적인 작업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애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나게 된 과거의 절망에 다시 빠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그 절망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

시청에서 행동으로

무력하게 멀리서 지켜보는 대신, 이사야 58:10-11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하신다.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밝은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

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 뿜는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부름 받은 건 단지 배고픈 사람들을 돕자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포스팅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바램을 보며 답답하며 고개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 자신을 쓸아부음으로 궁핍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부름받았다. 타인의 불행은 보다 보면 종종 두려움과 우울함이 생기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때 주님은 모든 우울함을 밝게 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까지 만족시켜 주신다. 우리가 만족을 찾아야 할 행동은 스크롤링이 아니라 진짜 봉사이다.

하나님이 끊임없는 주시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흐름 이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이야기로 초대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의 필요에 부응할 때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사야서의 이 구절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육체적 필요를 채우며 고통과 싸울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감정적, 영적 어려움을 만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우리가 기쁨의 증언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는 결코 뉴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비극은 결코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비극은 단지 인간의 죄가 모든 개인과 사회에게 어떤 끔찍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려줄 뿐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주변 고통에 대한 정보를 알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고통 속으로 발을 디디라고 부르신다.

성령의 열매를 고려하라

어떻게 해야 주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돕는 방식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을까? 일단 뉴스 소비가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생각해야 한다. 게시물을 스크롤하고, 기사를 읽고, 또 팟캐스트를 들을 때 당신 속에 일어나는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라. 거기에 성령의 열매라는 특징이 있는가(갈 5:22-26)?

- 이웃 사랑
 -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 당신의 삶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여부에 달린 평화
 -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인내심
 - 행동에서 드러나는 친절
 - 의롭고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함
 - 봉사하는 데서 드러나는 신실함
 - 마음과 몸의 한계를 향한 너그러움
 - 더 많이 알고 싶은 욕구에 대한 자제력
-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 불안, 죄로 특징지어진 반응이 주로 나타난다면, 당신의

뉴스 소비 습관은 재고되어야 한다. 보니 크리스티안은 Untrustworthy에서 단지 정보를 얻는 것보다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조언한다. "공부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구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이 모든 걸 다 잘 알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굳이 모든 헤드라인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적은 수의 기사를 깊이 신중하게 읽으라는 충고이다.

TV 뉴스, 앱 알림, 일일 뉴스 요약 이메일의 단식부터 시작하라. 적어도 몇 주 동안 소음을 제거하고 이런 변화가 당신의 관계, 기분 및 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라. 그리고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으라. 일기를 쓰고, 기도하고, 또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며 당신의 느낀 점과 생각을 나눠 보라. 혹시라도 더 개선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라.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와 돕는 손길과 재정을 어떻게 바치라고 요구하시는지를 고민하라. 그런 다음에 뉴스 피드를 새롭게 구성하라.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새롭게 정보를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주제에 대한 온갖 정보를 다 얻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오늘 터지는 뉴스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원한 구원 스토리의 일부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다. by Caroline Stoltzfus, TGC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동부교계 기사관

뉴욕교역자연합회 이취임식

뉴욕교역자연합회(회장 이규형 목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을 4월 14일(주일) 오후 5시 선한목사교회(박준열 목사 시무)에서 개최한다.
▲ 문의: 718-440-2287

뉴욕센트럴교회, 센트럴 어린이 축구 캠프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센트럴 어린이 축구 캠프를 5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4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되며 연령은 6세부터 12세이며 30명으로 제한하고 등록비는 100불이다.
▲ 문의: 516-387-9940

보스턴장로교회, 선교후원골프대회

보스턴장로교회(담임 장성철 목사)는 선교후원골프대회를 5월 18일(토) 12시에 Maple Gate Country Club에서 개최한다. 참가비는 180불이다.
▲ 문의: 508-435-4579

영생장로교회, 선교후원바자회

영생장로교회(담임 정승환 목사)는 4월 24일(수), 5월 1일(수) 두차례에 걸쳐 선교후원바자회를 개최한다.
▲ 문의: 215-542-0288

청소년 연합 수련회 "2024 CHALLENGE"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는 "TRUTH COMES FROM GOD"라는 주제로 6월 30일(주일)부터 7월 3일(수)까지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개최한다.
▲ 문의: 안근준 목사 646-388-0886

'2024 호프 장학금' 신청

뱅크오프호프는 2024년 호프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은 학생당 2,500불을 수여하며 접수마감은 5월 17일(금) 오후 5시(동부시간 기준)이며 신청방법은 <https://scholarship.bankofhope.com/> 지원하면 된다.
▲ 문의: <https://www.bankofhope.com/ko/hope-scholarship#apply>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 임직감사예배 후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 맞아 임직감사예배 드려

총 50인, 장로 5인, 안수집사 17인, 권사 28인 임직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임직감사예배를 4월 7일(주일) 오후 5시에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드렸으며 총 50인(장로 5인, 안수집사 17인, 권사 28인)의 임직식을 거행했다. 1부 예배는 인도 김성국 목사, 기도 임영근 목사(뉴욕노회장), 성경봉독 서명환 장로(총회 회계), 퀸즈장로교회 연합 찬양대의 찬양, 말씀 김남수 목사(KAPC 전 총회장), 화답찬양곡(찬양대)의 찬양으로 진행됐다. 설교에서 김남수 목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사야 43:18~21)"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동일한 하나님께서 퀸즈장로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는다. 당회장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가는 직분자로서 첫째는 주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둘째는 책임과 봉사에는 내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섬기라, 셋째는 협동과 일치에는 우리 교회가 되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2부 임직식에서 장로 총 5인(최성호, 정해성, 권혁민, 심인보, 송현규)의 임직식과 안수집사 총 17인(홍지혁, 최지훈, 송인태, 문태일, 조영욱, 이현승, 강 호, 강원철, 김재일, 오재혁, 김준래, 이성용, 배강원, 이재운, 김광남, 조성순, 김소영, 강석춘, 박경미, 권광령, 이승은, 권정자, 이경미, 최경란, 정희원, 정소연, 차문희, 이혜진, 황선영, 오연순, 윤영란, 박정희, 김순례, 이미셀, 임경순, 김성미, 강하이다, 임순미, 차진희, 김수자, 이인화, 엄경재, 이우정)의 임직식을 각각 진행했다. 당회장 김성국 목사는 임직 기도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

뉴욕교협,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평가회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2024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평가회가 4월 2일(화) 오전 10시30분 교협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유평가회에 앞서 유승례 목사의 사회로 드러진 예배는 기도 이광모 장로, 설교 이지용 목사, 축도 박태규 목사로 진행됐다. 이지용 목사는 '주님의 시연(요한복음 20:19-23)'이라는 제목을 통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느니 가라' '너희가 죄를 사하면 너의 죄도 사하여질 것이다'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감람산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이 말씀이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평가회는 각 23개 지역에서 3월 31일 새벽 6시에 뉴욕교협들이 연합하여 드린 부활절 새벽연합예배에 대하여 교협임원과 지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지역에서 진행된 예배 현황을 보고하며 예배를 통한 은혜와 감사, 개선점 등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태규 목사는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였다

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행복한 예배로 드린 것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진행을 정성으로 준비한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지용 목사는 "은혜로운 예배와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 아쉬운 점은 모든 진행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보다 지역에 위임해서 지역장과의 모임을 통해 예배장소와 설교자, 순서를 정하면 더 원활한 예배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김경열 목사는 "교협 임원들이 각 지역을 맡아서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았는데 한 교회에서 모든 임원들이 참석한 것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며 "교협은 약하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회장 박태규 목사는 총무와 서기의 부재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을 사과하며 교협의 연합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교협행사에 증경회장들의 관심과 협력이 함께 있기를 촉구했다. 평가회를 마친 후 임원들이 모여 다음 행사를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전한 후 부회장 이창중 목사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뉴욕교협,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평가회를 마친 후 사진 촬영했다



왼쪽 유경희 간사 감사패 증정, 오른쪽 유승례 목사 총무 임명



청소년 찬양의 밤 집회 중 찬양의 시간

뉴욕한인청소년센터, 제8회 청소년 찬양의 밤

"염려는 적게, 기도는 많이"

뉴욕한인청소년센터(디렉터 최지호 목사)는 청소년을 위한 말씀과 찬양집회를 4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친구교회에서 드렸다.

이번 8회 집회에도 SWAT 찬양팀(리더 전인권 목사)이 찬양을 인도했으며, 아름다운교회 EM을 담당하는 사무엘 안 목사(아름다운교회 영어예배)가

"Worry Less Pray More 염려는 적게, 기도는 많이 (마태복음 6:24-34)"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디렉터 최지호 목사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카이사르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3면에서 계속)

그는 글을 통해서 사회 엘리트 사이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였을 뿐이다. 그는 역사적 주장을 글로 써서 당시에 오늘날의 베스트셀러 계약에 버금가는 이익을 얻었다. 그는 잃을 것이 거의 없었고 얻을 것이 많았다. 예수의 초기 제자들은 진실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 그들의 대담한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정치적으로 위험했다. 목격자의 증언(행 1:22)으로 인해 그들은 지위와 부, 자유를 잃었고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잃었다.

역사가는 그러한 고통을 문서의 신뢰성에 대한 논거로 간주한다. 고트살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진술이 증인, 그의 사랑하는 사람 또는 그의 대의명분에 해를 끼치는 경우 그것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과 가족,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그들의 증언을 가장 설명하는 방법은 그들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물론, 신앙을 위

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광신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옳다고 생각해서 죽을 사람은 있어도 거짓임을 알면서 죽을 사람은 없다. 그들은 부활이 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증언한 게 아니다. 부활이 사실이었기에 증언했다.

3월의 이데스를 기념하는 역사학자가 몇 명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은행조차도 쉬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부활절에 모든 대륙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했다. 카이사르는 세상에 율리우스력을 주었지만, 1세기에 목수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우리에게는 연수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이 생겼다. 그건 람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다. 그의 죽음 때문도 아니다. 예수 외에도 로마가 십자가에서 죽인 적의 숫자는 적지 않다.

2068년 전 3월 15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세계는 이를 하나의 역사적 각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로부터 불과 77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죽은 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세상은 그날을 기점으로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by Steve Bateman, TGC

뉴욕교협, 유경희 간사 송별식 및 감사패 증정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17년 2개월간 교협을 섬겨왔던 유경희 간사를 위한 송별식을 4월 5일(금) 오후 12시30분 베이사이드 중식당에서 개최했다.

송별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태규 목사의 사회, 한재홍 목사(증경회장) 설교로 진행됐다. 한 재홍 목사는 "하나님의 선물(에베소서 2:4-10)"이라는 제목을 통해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 '창조신앙, 임마누엘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의 확고함이 있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창조 역사의 이루어가고 있으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창조 역사의 이루어가고 있으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창조 역사의 이루어가고 있으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일에 뒤에서 보이지 않게 큰 헌신을 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경희 간사는 "뉴욕교협의 모든 행사와 사업들이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몸으로 체험했고 18명의 회장님을 모시고 임원님들과 함께 일해 왔던 인생의 18년 동안 뉴욕 교협과 함께 하였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동안 함께한 모든 분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앞으로 교협간사는 폴타임으로 심진 유경희 간사가 사임하면서 파트타임 3명으로 구성되며 그에게서 임명사와 이광선 찬양사역자, 2세 한인청년회가 함께 섬긴다. 이날은 총무 양은식 목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무직을 사임함에 따라 유승례 목사를 총무로 임명했다. 공석인 서기는 수석협동총무 송일권 목사가 겸한다. <홍현숙 기자>

피종진 목사 4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2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제237차 해외성회(237th Overseas Assembly)
1(월)~ 2(화) 대만(TAIWAN) Taipei Mission MT 주최 : 연세대학교 연부협
3(수)~ 4(목) 대만(TAIWAN) Yaupei & Jiu Mission MT 주최 : 연세대학교 연부협

5(금) 오후 5(금) 저녁 국대신학교(NTS)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오산리 최자실기념교회(담임 원정 김원철 목사) 주최 : 위드(With)부흥사 협의회 (대표교인 피종진 목사, 대표총재 장사명 목사, 대표회장 정진오 목사) 010-7733-9106
서울 중랑구 중랑청성년센터 (대회장 장요한 목사) 010-2393-0616
부산 능곡교회(조영성 목사) 010-9685-0191
사천국복음교회(담임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10시 정책원기도회, 11시 4월 월례기도성회 장소 : 남서울중영교회 6층 분부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 동서울노회 중경노회장 Event 장소 : 서울 하늘교회(박성은 목사) 관산 열기도원 (원장 송영선 목사) 010-2017-8874
주최 : 그루터기부흥교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태문 목사) 010-2296-0675
송추 반석기도원 (원장 고영남 목사) 010-2391-3004
부천 우리교회(홍영호 목사) 010-7754-8291
서울 강남반석교회(장사명 목사) 010-8331-3431
서울 강남반석교회(장사명 목사) 010-8331-3431
대한예수교장로회(합) 서울동노회 (노회장 황규재 목사) 010-4423-2838
대한예수교장로회(합) 동서울노회 (노회장 박성은 목사) 0212145-0011
목회자 행복전도세미나 주최 : 열방선교총회 (총회장 허은재 목사) 010-3028-1545
장소 : 광덕 토브성전
오산리 최자실기념교회(담임 원정 김원철 목사) 주최 : Good TV 부흥회의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원철 목사) 010-7291-0291
서울 기독교방송 (사명 규규임 목사, 담임 홍성남 목사) 010-4242-5022
장소 : 기독교연합회 1308
18(목) 저녁 서울 강남순교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19(금) 저녁 성주시원연합회 장소 : 성주 동교회(김중현 목사) 010-2380-2024
20(토) 오전 Special Event Blessing
21(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870-5642
22(월) 오전 KAIKAM 제49회 목사안수식 장소 : 분당합일루터교회(담임 김승우 목사)
23(화)~24(수) 천안 위대한인승교회 (윤재민 목사) 010-3980-5991
대구 추복교회(김사명 목사) 010-8896-8833
주최 : 그루터기부흥교회 (대표총재 정태문 목사) 010-2296-0675
25(목)~27(토) 포항 샘물기도원 (원장 백민정 목사) 010-3739-4442
29(월) 오후 파주 그레이스안수원 (원장 정영희 목사) 전곡로세미나 010-5354-5542
30(화)오후, 저녁 파주 열린교회 (임은경 목사) 010-2473-8023

www.nasca.or.kr
남서울중영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0(개포동) Fax. 02)401-7770

2024 미주한인교회 상반기 교단별 총회

2024년도 미주한인교회 상반기 교단별 총회가 15일(월) 미주 성결교회를 시작으로 6월13일 남침례교회와 미국장로교회

(PCA-CKC)까지 일제히 시작된다. 다음은 총회 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날짜	교단	장소	문의
4/15-19	미주성결교회	(NJ) DoubleTree by Hilton Fort Lee	(424)558-3443
4/22-25	C&MA	(NJ)Holiday Inn Hotel Hasbrouck Heights	(201)440-5700
4/23-5/3	UMC	(NC)샬럿 컨벤션 센터	(615) 742-5457
5/1-3	NCKPC	(한국) 곤지암 소망수양관 (서울 소망교회)	(404)704-2271
5/7-10	기감미주자체연회	(CA)LA만나교회	(513)824-2552
5/14-16	KPCA	(멕시코)Batcelo Maya Grand Resort(칸쿰)	(310)502-8541
5/20-24	KAPC	(CA)Embassy Suite Burlingame Waterfront	(415)407-8736
6/10-13	PCA-CKC	(VA)Greater Richmond Convention Center	pcackc2024@gmail.com
	SBC	(IN)Indianapolis Marriott East	(972)221-8026



OC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가 나침반교회에서 열렸다

2024 남가주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일제히 드려져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살아나셨네"

2024 남가주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부활절 새벽인 3월31일(주일) 오전 5시30분에 일제히 드려졌다. △3월31일(주일) 오전 5시30분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열린 오렌지 카운티 교계연합 2024 부활절 연합예배는 이창남 목사(교협 부회장/주님의손길교회) 인도와 나침반교회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돼 환영사 민경엽 목사(교협이사장/나침반교회), 대표기도 배기호 장로(장로협의회 회장), 특별찬양 은혜한인교회 중장단, 성경봉독 윤우경 권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권혁빈 목사(교협 부회장/씨드교회)는 '다시 살아나라(에스겔 37장 1-5절)'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한기홍 목사(교협 중경회장/은혜한인교회), 조봉남 회장(OC 한인회장), 심상은 목사(교협회장/갈보리선교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이어 레우성가단이 특송했으며 박용덕 목사(교협 중경회장/남가주빛나리교회)가 축도했다. △ 동부교회협의회(회장 박선호 목사) 주최로 열린 LA동부지역 연합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는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주제로 3월31일(주일) 오전 5시30분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드려졌다. 구자민 목사(유니온 교회) 사회로 시작된 이날 기도회는 우영화 목사(동부사랑의교회)가 기도했으며 홍충수 목사(나성한미교회)가 성경봉독, 선한목자

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가 '부활과 나 그리고 우리(로마서 5장 8-11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걸린 헌금은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와 동부지방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날 기도회는 고태형 목사 축도로 마쳤다. △총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에서 개최된 LA지역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는 남가주교협(회장 최영봉 목사) 주최로 열렸다. 사회 최영봉 목사, 기도 최학량 목사(중경회장), 성경봉독 윤우경 권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민중기 목사는 마태복음 28:1-10절을 본문으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라는 제목의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부활절 축하 인사는 송정명 목사(성시화운동공동대표), 김영완 총영사(LA 영사관), 제임스 안 회장(LA 한인회),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중경회장 대표), 이정현 목사(한기총미주총회장)가 남가주 지역사회에 부활절 인사를 전했다. (박준호 기자)

4.10 총선을 위한 자유우파연합 구국기도회 열려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메리카한인연합재단(회장 이우호 목사)이 주최하고 LA구국재단이 주관한 4.10 총선을 위한 자유우파연합 구국기도회가 5일(금)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와 6일(토) 남가주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는 말씀을 주제로 열렸다. 5일(금) 오후 5시 45분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심상은 목사의 환영사 및 개회기도와 이우호 목사 인도로 열린 구국기도회는 사무엘 곽 목사(갈렘선교회 대표), 심진구 목사(한미연합부흥사 대표), 조현영 목사(아메리카연합재단 OC), 사라 박 선교사(일본교회 선교사),

정우영 목사(LA구국재단), 황경훈 장로(영락상조회 이사장), 김미선 교수(미주총신대), 장두영 장로(LA구국재단)가 나서 기도회를 인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4.10 총선에서 자유우파진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대한민국 복음화와 교회일치를 위해, △일본과 중국의 복음화, △한국교회와 목회자, 장로 및 성도들, △북한국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공정선거 부정없는 정직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 △오렌지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등의 제목으로 합심기도 한 뒤, 윤성원 목사(OC교협 중경회장)의 폐회기도 및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달라스 텍사스, 콜로라도, 아리조나 지역 부활절 행사 열려 연합예배, 기도회, 찬양제 등 열려

텍사스와 콜로라도, 그리고 아리조나 지역 2024년 부활절 연합행사가 3월31일(주일)에 일제히 거행됐다. △달라스 지역: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제로 열린 2024 달라스 부활절 연합예배 및 기도회는 달라스 교회협의회(회장 손해도) 주최로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담임 배연택 목사)에서 오후 6시에 드렸다. 이날 예배는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배연택 목사 인사말 및 개회기도로 시작되어 안현 목사(달라스안디옥교회) 기도, 중앙감리교회 연합성가대 찬양으로 이어졌으며 교협회장 손해도 목사(코너스톤한인침례교회)가 '칼을 칼집에 꽂으라(요한복음 18장 1-11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합심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기영렬 목사(달라스드림교회)가 '달라스 연합과 부흥을 위해', 정해살 목사가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김형민 목사(새빛침례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이은상 목사(세미한교회)가 '한국과 미국의 부흥을 위해', 신자겸 목사(달라스하나로교회)가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인도했다. △휴스턴 지역: 휴스턴 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홍형선 목사, 휴스턴 순복음교회 담임)는 2024년 부활절에 특별 새벽예배를 오전 6시 새누리교회(담임 궁 인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홍형선 목사가 '부활신앙(마 28:1-1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설교 후에 궁 인 목사 인도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휴스턴 한인동포사회와 교회를 위한 합심기도 했으며 정지현 집사가 특송했다. 이날 예배는 이수관 목사(서울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콜로라도 덴버지역: 덴버지역 교역자회(회

장 이형만 목사)가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열렸다. 회장 이형만 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축복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이형만 목사(덴버한인장로교회)는 '갈릴리로 가라(마태복음 28: 1-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편, 이날 드려진 헌금은 교역자회 연합사역, 선교사역,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리조나 피닉스지역: 아리조나 한인교회 연합회(회장 조용호 목사) 주최 부활절 연합 찬양제가 오후 4시 30분 아리조나 새생명교회(이성재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교회연합회장 조용호 목사(아리조나 한인장로교회)는 요한복음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아리조나 갯스이미지(디렉터 이소라) 댄스팀, 3인조 여성 찬양선교팀 'The Soul' (김한나, 오소라, 김보임)의 공연이 있었다. 제2부 '찬양제'가 시작됐으며 바리톤 강민석 집사, 아리조나 한인장로교회 남성중장단, 심자가의교회 남성합창단, 소리하나 합창단, 이지영 풀루티스트와 피아니스트 조은하, 피아니스트 김수연 등이 출연하여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였으며 투산 시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인 오근 성도가 지휘하는 연합찬양대와 연합오케스트라의 공연과 이성재 목사(새생명교회) 축도로 찬양제를 마쳤다. 한편 투산지역은 교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형 새벽 연합 기도회는 자취 없이 각 교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알뜰하게 진행되었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및 기사장르)



달라스중앙감리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4.10 총선을 위한 자유우파연합 구국기도회에서 이우호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총현선교교회 화요사랑방

총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는 대화를 통해 기독교를 배워가며 이민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함께 나누는 화요사랑방 모임을 4월9일부터 6월11일까지 10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50분에 갖는다. 참가비는 교재를 포함 20달러이다. ▲ 문의: (818)549-9191

선한목자교회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세미나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세미나를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이진아 전도사(남가주 다음세대 지키기 대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본교회 Youth실에서 갖는다. 일정은 금(7pm-9:30pm), 토(10am-3pm), 주일(3pm-5:30pm)이다. 등록비는 \$50(교재, 간식/점심 식사) ▲ 문의: 구정미 장로 (626)674-4266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텍사스 자마 글로벌 캠퍼스(22392 FM 16 W., Lindale, Texas 75771)에서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개최된다. 등록비는 \$300 ▲ 문의: (310) 995-3936

주님의영광교회 최인혁 목사 찬양의 밤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최인혁 목사 찬양의 밤 집회를 12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213)749-4500

토렌스조은교회 중고등부 부흥회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는 중고등부 부흥회를 'Who is God?(롬 5:8)'이라는 주제로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갖는다. 일정은 금 오후 6시, 토요일과 주일 오후 5시이다. ▲ 문의: (310)370-5500

제18기 'QT를 통한 시 창작 교실'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미 전도사)이 주관하는 제18기 'QT를 통한 시 창작 교실'이 줌으로 개최된다. 8주 기본 과정을 다루는 이번 시창작 교실은 히브리문학과 현대문학의 중보적 입장에서 기본 시 창작법을 배우고 각 주제에 따라 최소 8편의 시를 쓰며 시의 미션을 지향해 가는 클래스다. 4월 12일부터 5월 31일(오후1시)까지 8주과정의 강사는 이민미 시전 대표. ▲ 문의: (818)590-6469.



세계선교교회 임직식에서 임직받은 권사들과 추대된 명예장로들이 담임목사(사전) 가운데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계선교교회 임직예배 거행돼

권사임직 4명 명예장로 4명 추대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 임직예배가 7일(주일) 오전 11시에 거행됐다. 김창섭 담임목사 집례로 열린 임직식은 임직자 소개, 임직자 및 교우 서약, 안수, 악수, 공포, 임직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명예장로 추대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희정, 이성복, 전화영, 한성에 집사가 권사로 임직됐으며 김기식, 김한준, 정승훈, 최용문 집사가 명예장로로 추대됐다. 김희정 권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순종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복 권사는 "낮은 자세와 높은 믿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권사가 되겠다"고. 전화영 권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권사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배와찬양과 김창섭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이재영 장로가 기도, 할렐루야찬양대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창섭 목사는 '보내시는 예수(눅 24:44-5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

다. 김창섭 목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만났던 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부활 후 가장 먼저 만난 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함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증인된 사명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고 추대 받은 자들 역시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임직 받은 4명의 권사들이 특송을 불렀으며, 파송찬송을 부른 뒤 김창섭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독불장군' 스타일은 안먹혀... 선교도 '팀사역' 으로 해야

강대홍 KWMA 사무총장, 책 '더불어 사명대로 산다' 발간

선교지에서 사람을 세우고 현지 교회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미래 선교' 모델을 제시한 책 '더불어 사명대로 산다'

도서출판 사도행전)가 발간됐다. 저자인 강대홍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은 선교지에서 33년간 사역한 현장 경험과 함께 한인세계선교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등에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한 선교 사역에 대해 실제적 대안을 언급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팀 사역'을 강조한다. 후배 선교사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사역과 재정의 분담을 경험한 그는 팀 사역의 실제 방법을 안내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이외에도 돈으로 하는 물량적 선교를 벗어나 현지인을 세우는 선교 모델을 강조한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핍박 심화되는데..."

한국 신학교, 대응 훈련 안 해 안타까워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핍박받는 성도들과 동역하는 한국 순교자의소리(VOMK)가 '지하신학교(Underground Seminary)'를 개강한다. 오는 12일부터 11월까지 경기도 포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군에서 6개월간 진행되는 과정으로 한국교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신학교 과정이다. VOMK 최고경영자 에릭 폴리 목사는 최근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전 세계적으로 핍박에 대한 핍박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신학교가 신자들 어떻게 교회로 인도하고

사역할지에 대한 방법을 거의 훈련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 신학교는 기독교를 제한하거나 기독교인이 되는 게 불법인 여러 나라에서 교회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사용되는 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북한 지하교인과 남한 기독교인이 팬데믹에 다르게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됐다. 팬데믹을 거친 뒤 남한 교회의 경우 30% 이상 타격을 받았지

만 북한 지하교회는 오히려 영적으로 견고해지는 기회가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교회들이 팬데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역을 멈춘 것을 보면서 씩씩하는 교회로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팬데믹 같은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신학교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신실한 고백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한다. 사도 시대부터 개신교 개혁자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하고 신실한 6가지 신앙 고백에 대한 의미를 매일 하나씩 공부한다. 목회자는 물론 한국 정통 교단에 소속된 교인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폴리 목사는 "6가지 신앙 고백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유일한 목적이자 부르심"이라며 "우리가 복음에 더 집중한다면 교회를 이루는 건물이나 사역 등에 대해선 다소 느슨하게 대응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고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미니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해야"

수기총 · 진평연,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진평연(진평연)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의 장래를 밝게 하고 질서를 지키고 윤리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법안이 총선을 앞두고 함부로 발의돼버렸다"며 "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에라도

발의되거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수기총 전문위원인 주요섭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의 3주체가 화합하는 법이 신설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치 이념에 의한 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지난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학생인권법이 독립 제정 법안으로써 의원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강 의원은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려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일연합선교회, 영적 불모지 일본 복음화 위해...

순교자 탐방하고 아카데미 열고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은 복음화율이 1% 채 되지 않는 영적 황무지다. 일본 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 현지에 대해선 다소 느슨하게 대응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고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사장 정성진 목사)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WGN 나가사키 순교자 탐방'(사진)을 진행한다. 일본 오무라·나가사키·히라노시 탐방에서는 오무라 순교자, 스타타 감옥, 호코바루 처형장, 26인 순교기념비, 야이자 화장장 등 목숨으로 신앙을 지킨 일본 초기 크리스천

들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하중 장로와 김동주 호서대 연합신학대학원장의 특강과 '노면전차 기도회' 등 이색 체험도 예정돼 있다.

탐방 중 오는 17일 일본 나가사키 브릭홀에서 열리는 제4회 한일문화교류회도 볼거리다. 한국인 500명, 일본인 300명이 문화 교류를 하는 자리로 기타리스트 장하은, 테너 윤정수, 소프라노 김선덕, 한·일 합창단이 공연을 펼친다.

일본복음선교회(대표 이수구 선교사)는 다음 달 11일과 15일 인천 산곡제일교회, 서울 서소문교회에서 각각 제9회 일본 순교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일본의 정치 문화 사회 등을 알리는 강의를 통해 일본선교 관심자들에게 일본을 알리고 일본 선교의 동역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강사는 마키다 요시카즈(수쿠모교회) 신성일(로시마교회) 목사, 김한식(국방대 정치학) 명예교수다.



성경 기증하는母女, 이번엔 아이티에 3000부 전달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남편과 아버지의 유지(遺旨)를 따라 대를 이어 세계 각국에 성경을 기증하는 모녀가 있다. 서울 종로구 동신교회 권사와 집사인 김영례씨와 그의 딸 왕보람씨 이야기다.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순권 목사)는 김씨와 왕씨의 후원으로 '아이티

큰 활자 성경' 3000부를 아이티에 보낸다고 8일 밝혔다. 기증식은 지난 5일 경기도 용인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엔 두 사람뿐 아니라 왕씨의 남편과 딸이 동석해 3대가 성경 기증 현장에 함께했다(사진). 김 권사는 "

이번이 7번째 성경 기증인데 어떤 선교보다 귀한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 그저 감사할 뿐"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는 국민 30만 명이 숨진 2010년 대지진 피해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달아 허리케인과 지진, 코로나19 등 각종 자연재해를 입었다. 최근엔 무장갱단이 도심 곳곳을 장악해 치안과 행정이 불안정한 상태다. 호재민 대한성서공회 총무는 "혼란 가운데 있는 아이티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권사는 부군인 고(故) 왕기일 동신교회 장로의 뜻을 따라 딸과 함께 2018년부터 세계 각지에 성경을 보내고 있다. 고인이 특정한 마이크로네시아를 시작으로 가봉(2019년) 부르키나파소(2020년) 모잠비크(2021년) 말라위(2022년) 크로아티아(2023년) 올해 아이티까지 총 3만4522부를 후원했다.

예장통합 서울강남노회 교계 최초 '블록체인 투표' 성공

9일 열린 제74회 정기회에서 총대 46명 모바일 블록체인 선거로 뽑아



노회원들이 미리 휴대폰에 내려받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자 '서울강남노회 총대선거' 메뉴가 보였다. 메뉴를 클릭한 후 나타난 빈칸에 노회원들이 후보 번호를 적으니 번호를 부여받은 후보의 이름이 바로 나타났다. 선택을 마친 후 마지막

에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투표 완료다. 모든 노회원이 투표를 끝내고 결과가 모니터에 뜨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초. 순위와 득표수까지 바로 공개됐다. 투표 방법을 설명한 시간을 제외하면 참석 노회원 240여명이 총대 46명을 뽑는 데 총 20분이 걸리지 않았다.

시간 정도 소요됐다. 대형 노회인 만큼 후보가 400명이 넘어 기표 중 실수로 인한 무효표도 많았고 인력도 많이 동원됐다. 블록체인 투표는 간편한 데다 조작할 수 없고 엄격한 신원인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암호화된 기록이 영구저장돼 비밀투표가 가능하다. 이번에 블록체인 투표 기술을 제공한 전범주 스웬 대표는 "사전 준비로 노회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노회는 유권자와 후보자 명단만 입력하면 된다"며 "언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특별한 안전이 있을 때 노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노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빠르고 정확한 투표에 노회원들은 대체로 만족했다. 임현철 노회장은 "교계 최초인 만큼 공청회와 모의투표 등을 거치며 준비했다"며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노회원들이 모바일 작동에 더 익숙해지면 시간도 더 단축될 것이며 교회가 진일보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현장에는 예장통합 총회 직원들도 참관해 9월 총회에 블록체인 투표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동안 예장통합은 스마트 단말기를 사용해 투표를 진행해왔으나 단말기 분실 우려와 대리 투표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다"며 "최근 당회에서 장로님들 덕에 발상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건물의 매입 원가만큼의 금액을 나누어 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통해 분립한 교회들이 상환할 250억원도 드림센터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목사는 "드림센터 관련 650억원에 더해 총 900억원의 기금이 사용될 것"이라며 "교회와 교인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베풀게 되는 바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임현철 장로)가 교계 최초 블록체인 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노회는 9일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김경진 목사)에서 열린 제74회 정기회에서 목사 총대 23명과 장로 총대 23명 선거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투표로 진행했다. 총대는 노회 대표로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정한다.

노회는 그동안 총대 선출에 오엠알(OMR) 카드를 사용해 왔다. 카드를 배부하고 투표 후 취합해 결과를 공표하기까지 1

"2046년까지 매년 30억씩 장애인·청년·노년층에 사용"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 건물 원가만큼 금액 나눠 총 900억 기부

교인 1만명을 29개 교회로 파송해 '흠여지는 교회'의 모범을 보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우리교회(이찬수 목사)가 또다시 교회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취약계층과 미래세대, 어려운 교회를 위해 총 900억원의 기금을 풀기로 한 것이다.

9일 분당우리교회에 따르면 당회는 2012년 선인했던 드림센터 사회 환원의 구체적 방식을 결정해 교인들에게 공개했

다. 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2층 빌딩을 매각하거나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한다는 기존 방식을 철회하고, 건물의 매입 원가만큼 기부기로 했다. 이목사는 지난 7일 설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밝혔다.

드림센터 매입 원가는 650억원 규모다. 교회는 이 금액만큼 1년에 약 30억원씩 장애인과 청년 및 노년층 등 도움이 필

요한 이들에게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의 예상 소진 시기는 22년 후인 2046년이다. 교회는 지난 10여년간 건물 환원의 세부 방법을 두고 외부 전문가 자문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적당한 방안을 찾지 못했고 수년째 고심을 거듭했다. 이목사는 최근 설교에서 "건물 소유권을 내놓는 방식을 모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았

mission 선교의 창 (235)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라마단(Ramadan)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인의 자세

전 세계 18억 무슬림이 한 몸체처럼 투쟁을 하고 있다. 그들은 라마단 한 달 동안 매일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금식하며 메카를 향해 하루 5번씩 절을 하고 있다. 이 광경을 위성사진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다...

으로 아홉 번째 달을 가리킨다. 그 명칭은 아랍어로 "타는 듯한 더위와 건조함"을 뜻하는 "라미다(ramida)" 또는 "아라마드(arramad)"에서 유래되었다. 이 때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Mahomet)가 천사 가브리엘(Gabriel)로부터 코란을 계시 받은 달로 여겨 신성시 하며 금식을 강요한다. 라마단의 금식은 푸아사(PUASA)라고 하며 모든 무슬림이 따르는 5대 의무 중 하나이다. 이는 30일 동안 해가 뜬 후부터 질

종해야 한다.

라마단 기간의 실태와 풍습

라마단은 이슬람권에서 종교 활동의 범위를 넘어 하나의 생활 문화이다. 무슬림들은 라마단 한 달은 낮에도 밤에도 계시 받은 달로 여겨 신성시 하며 금식을 강요한다. 라마단 동안 먹고 마시다 보니 심신이 지쳐 있는 무슬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한 달 동안 하루를 쪼개 2교대 근무를 하는 셈이

높은 때라고 한다. 라마단을 축하하는 풍습도 바뀌고 있다. "라마단 카드"는 이제 여전한 문화상품이 됐다. 인터넷 공간에선 "e카드"가 유행한다. 집집마다 상점마다 형형색색의 라마단 장식 등 "파누스"가 밤이 되면 더욱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 캐럴만 없다 뿐이지, 기독교의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신문과 방송, 각종 전단지마다 라마단 특수를 노린 광고가 넘쳐난다. 라마단 특수는 일 년 매출액의 30~40%를 차지한다. 라마단이 "과식과 소풍의 시간으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라마단의 주된 목표와 기독교 시각에서 해석

인간에게 욕망은 경건의 대척점에 있다. 인간은 본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도들이 금식을 통해 개인적인 과실과 악행을 속죄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며 알라 신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게 한다. 저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면 하늘의 상급이 증가

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생내적으로 이슬람 문화에 체질화된 인간은 그 사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 자체를 거부하며 결과적으로 맹종하게 된다. 라마단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과연 그들 중 라마단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는 얼마나 될까? 사회의 분위기가 혹, 후한이 두려워 행세하는 자는 없을까? 같은 하늘 아래 행복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인간이 집체적으로 종교라는 굴레에 묶이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슬픔이다.

라마단 때 기독교인의 자세

한마디로 이슬람 교리는 타도의 대상이나 사람은 포용의 대상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이슬람교와 라마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일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말이 있다. 적을 모르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로 저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이는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

들을 할고 주안에서 소통하며 이슬람에 대한 체계적이고 연합적 대책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김첨 차원에서 교회 안의 모든 에너지를 선교적으로 분출시키는 것이다. 지금처럼 무관심, 무대책, 무능력이라는 3무로 일관할 때 장차 큰 불행이 맞이할 수도 있다.

맺음 말

올해도 라마단이 끝나가고 있다. 한 달 동안 낮 시간 내내 금식하며 일상생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계율을 따르다보면 독해지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사막의 독사가 연상이 된다. 저들은 평상시에도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메카를 향해 절을 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단일 대오로 연합을 이루니 평창할 수밖에 없다. 이슬람은 밀려오는 영적 쓰나미와 다를 바 없다. 저들 교리와 관습에 묶여 고통 받는 사람들이 가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다. 이에 반해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자유로움과 당파적이다. 해안으

금년 라마단은 메카 기준으로 3/10일 - 4/8일이다. 이 때 무슬림들 대부분은 금식하며 치열한 영적 투쟁을 한다. 우리는 계율에 묶인 저들을 위해 탄원하되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아야 한다.

때까지(대체로 오전 6시-오후 6시) 음식은커녕 물조차도 마시지 않는다. 어떤 이는 짐까지도 삼키지 않기 위해서 땅에 뱉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흡연, 성행위, 폭력, 화, 시기, 탐욕, 중상, 음행 등 반 종교적인 행위를 삼가한다. 단, 건강상 이유로 병자나 임산부, 어린 아이들(일반적으로 7-8세가 기준)은 제외되며, 군인과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 자 그리고 끼니를 안 챙겨 먹었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사람들도 제외된다. 생리 중인 여성도 제외되는데 나중에 빠진 기간만큼 보

다. 라마단 기간에 심야 폭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도 스트레스 요인이다. "금욕의 달" 라마단엔 오히려 평균 음식 소비량이 평소보다 30~40% 이상 증가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폭식은 건강에도 안 좋고, 빠르지 못한 라마단 수행 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도, 낮 동안 굶었던 이들은 밤에 과식을 하기 마련이다. 아무튼 통계에 의하면 라마단 기간은 일 년 중 무슬림들에게 가계의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엔겔지수(Engel's Coefficient)가 가장

하고 알라로부터 복의 복을 받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인간이 하루 만의 금식도 쉽지 않는데 그것도 한 달간이나 금식하며 일상을 영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생활 양태 하에서는 인간이 비인간화되기 쉽다. 이슬람의 계율은 매우 엄하다. 그 신앙은 신도들에게 관념적이기 보다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이슬람교는 대체적으로 제정일치를 추구한다. 코란의 내용을 국가차원에서 통치에 적용하며 하나의 문화로 귀착하게 한다. 따라서 현세적 사람은 물론이고 여가서 태어난 후세들은 이 체제

하고 오직 신(성령)으로 되기 때문이다. 신년 특별세력기도를 하듯 교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공통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로 주변의 무슬림들을 판단하며 경계의 눈초리로 대하기보다는 주의 사랑으로 살피며 섬기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키는 사랑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구시 십자군 전쟁을 언급하지 않은 다 치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많은 과오를 범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라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칼이나 힘을 앞세워서는 아니 된다. 넷째는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막힌 담

로 밀려오는 영적 먹구름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직 내 교회 성장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태평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익히 알라. 어두움의 세계에는 결코 자비란 없다. 쓰나미 앞에서는 너도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안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불어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 끊임없이 청원해야 한다. "18억 인구의 이슬람권에도 구원의 손길을 뻗치소서!"

Jrsong007@hanmail.net

라마단의 유래와 계율

라마단은 이슬람교도들의 성월(聖月)이자 단식 월이다. 라마단(رمضان)이란 이슬람력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31강 연합국 전투, 갈렙 그리고 안식 (4) (여호수아10-24장)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제 요단 동쪽의 2 지파와 반지파 그리고 가나안 2차 전쟁을 먼저 치른 2지파와 반지파해서 모두 5지파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7지파의 차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수 18:3)고 하며 땅을 배나민 지파에게(수 18:11-28), 시므온 지파에게(수 19:1-9), 스불론 지파에게(수 19:10-16), 잇사갈 지파에게(수 19:17-23), 아셀 지파에게(수 19:24-31), 납달리 지파에게(수 19:32-39) 그리고 단 지파에게(수 19:40-48) 분배하고 땅 나누는 일을 마칩니다(수 19:51).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민 35:9-34)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신 19:1-13) '도피성'에 관해서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수 20:1-9).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민 35:21/ 신 19:11-13)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수 20:3,5,9).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였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본 성을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으로, 그 길 자체로 오셔서(요 14:6) '자유'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요 8:32).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고(수 21:1-42)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기로 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보냅니다(수 22:1-34). 여호수아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수 22:5)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는 길에 쌓은 제단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있었지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중재로 그 제단은 이방신을 제사하기 위한 제단이 아닌 후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요단 동쪽과 서쪽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임을 증거하기 위함임이 밝혀집니다(수 22:21-31).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남겨 두 상황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기록하지만(수 21:43-45) 이것은 잠시 하나님이 주신 맛보기와 같은 안식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안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히 4:8,9).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세의 출애굽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 시절을 거쳐 가나안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회고합니다(수 24:1-13).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는 분명한 뜻을 밝히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수 24:16),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수 24:18)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한번 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수 24:20)고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수 24:21)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될듯한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수 24:22)고 하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 그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삼습니다(수 24:25-27).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다함으로 죽습니다(수 24:29).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청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수 24:31)는 여운있는 말을 남기며 여호수아서를 끝맺습니다. 그 여운의 의미를 다음 성경인 사사기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다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복되는 up and down의 이야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알콩달콩 살아도 부족함에 쉬지 않고 반복되는 범죄 가운데 '복은 복대로 벌은 벌대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언터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도 속이 터지고 지켜보는 우리도 속이 터지겠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울드시는 그 열심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이며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십자가가 보인 증거들 (마27:32-44) 찬 378장

하나님 경륜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놀라움을 발견합니까? 첫째, 십자가 집이 복됨을 봅니다.(32) 역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은 훗날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롬 16:13) 둘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크게 증거함을 봅니다.(34-36) 마취제,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심은 성경의 성취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요10:28) 모진 고난 속에서도 성경의 성취를 감안하심은 성경이 하나님

의 말씀임을 크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주님의 성경관에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하나님 아들됨을 십자가로 뚜렷이 증거하셨습니다.(40-43)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장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이심을 역설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화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 (마27:45-46) 찬 211장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무슨 상징과 모형으로 증거합니까? 첫째, 세 시간의 어두움이 증거합니다.(45) 흑암같은 죄에 대한 심판이 어두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최대의 지옥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가 당한 흑암의 고통은 우리에게 광명을 가져왔습니다. 어두웠던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광명이 되었습니다.(엡 5:9) 둘째, 성부로부터 버림당하신 주님의 절규가 증거합니다.(46)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성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지옥 고통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들뜬

내동맹이치듯이 성부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일시 동안 성자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성부의 내어주는 사랑과 성자의 자원하신 대속의 사랑이 연합하여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고통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46) 셋째, 신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고통이 증거합니다.(47-48) 마취제 일종인 신포도주가 주어진 것은 그분의 고통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가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 이 큰 증거 (마27:50-56) 찬 161장

그리스도 죽음의 효능은 최초로 세가지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은 (51)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킨 죄를 단번에 제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교통할 수 있게 된 일은 하나의 상징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열린 휘장을 통해 담대히 나아갈 때를 따라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히4:16) 둘째, 땅의 진동(51)은 그의

죽음을 받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중보 사역이 영원히 계속됨을 보입니다. 셋째, 무덤에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남(52-53)은 그의 죽음의 효능의 절정을 보인 것입니다. 새 생명이 오직 그의 완전한 죽음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그의 죽음없는 부활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큰 증거로 사는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목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신앙 고백 (마27:54-56) 찬 496장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운명 직후의 상황을 간단히 묘사하는 마태는 그의 완전한 죽음을 주목했습니다. 첫째, 집행관들이 증거했습니다.(54)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전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신 집행관은 그 되는 일을 보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어두움과 지진이 보여준 의미를 알 수 없었어도 그들은 그 사건을 알리는 두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지옥 공포로 나타난 것입니다. 둘째, 집행관들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은 하나님 아들의 완전한 죽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그 아들의 죽음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불가능한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롬5:8) 셋째,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54-56) 조용히 따르던 여인들은 구속의 증거에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가 성경대로 죽으심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거기 이한 구속을 찬송합니다.

금 그리스도 죽음의 증인들 (마27:57-61) 찬35장

그리스도의 죽음을 둘러싼 그의 완전한 죽음의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보여졌습니다.(57) 자기 무덤에 장사하는 행위가 그의 죽음을 증거했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만이 무덤에 장사될 수 있습니다. 기절설이나 도적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빌라도가 증거합니다.(58) 주님을 사형집행의 수장인 빌라도가 그의 시체를 내어줌이 그의

죽음을 증거합니다. 구속의 의미에 무지한 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죽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여러 마리아들(61)이 완전한 죽음을 거듭 확인하여 그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온 세상이 증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죄책과 모두 형벌이 완전히 죽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중심한 삶을 살아갑시다.

토 원수들의 증거 (마27:62-66) 찬 471장

그리스도의 절대 고난과 절대 죽음은 본문에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첫째, 종교 지도자들의 확인을 통하여 증거되었습니다.(62) 안식일 예배일, 금요일에 운명하신 사실이 그들에게 확인되었고 그의 부활 예언의 성취를 격정하여 사흘간 군병이 지키도록 요청할 정도로 분명한 죽음을 확증했습니다. 둘째, 빌라도 자신이 또다시 증거했습니다.(65)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정사

실화하여 파숫군을 내어주는 결정 자체가 그의 죽으심을 증거했습니다. 셋째, 파숫군이 확증했습니다. 무명의 로마 군병들이 그의 완전한 죽음을 증거하는 최종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드리셨다는 확증입니다. 그의 확실한 죽으심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56)

할렐루야

C.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 일수록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로마제국을 개종시키는 일에 불씨를 던진 사도들, 중세를 건설한 위인들, 노예 매매를 폐지한 영국 복음주의자들이 모두 이 땅에 큰 족적을 남겼던 것은 바로 생각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증거들을 내세웁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에 이렇게 무력해진 이유도 다분히 내세를 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루이스는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반전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실패인 동시에 최고의 승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의 머리와 가슴에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을 확인하고 그와 연결해서 헨델(G. F. Handel, 1685-1759)의 할렐루야 코러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화였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영국 성교회 주교 겸 신학 신학자 톰 라이트(Nicolas Thomas Wright, 1948-)가 쓴 "The resurrection of the Sun of God"에 보면 "1세기 예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은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벌어진 사건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일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들에 이어, 3세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카타콤의 기독교인들도 명확하게 그 사실을 바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그 극렬한 핍박 속에서도 매년 그들의 첫 인사가 "He is risen 주님이 부활 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 순간 확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대반전 사건으로, 현재의 삶을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와 연결 지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과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에 계시록을 쓴 요한 저자는 죽임당하신 어린양을 향해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그리고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계5:12-13)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러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가 세세 무궁토록 왕 노릇하실 만유의 주 되십니다. (계 11:15, 19:16) 라고,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 헨델은 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2부, "수난과 속죄"의 마지막, 그리고 3부, 부활과 영생"의 마지막 곡에 가사를 만들며 오라토리오 "메시아" 대단원의 종결을 하였습니다. 헨델은 이 오라토리오를 만들 당시 그의 생애 가운데 정신적, 재정적인 최악의 빈곤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합창을 작곡하는 탄생 신비는 놀라웠습니다. 헨델은 당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윤임상 교수 (월미선대학교대학원)



먹지 못한 채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그를 돕던 하인의 증언에 의하면 식사를 가져다주면 먹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았고 종종 그가 작곡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할렐루야"를 완성했을 때 그는 한 하인에게 "내 눈앞에 온 천국이 보였고,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합창의 리듬 형태를 보면 가사 "할렐루야"를 마치 반복 후렴구나 반주처럼 사용하면서 이어지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의 선율과 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 전능의 왕으로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 그는 음표를 자유자재로 다뤘던 대가다운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대 작곡가들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그의 오라토리오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Christ on the Mount of Olives)"를 작곡하던 중 이 메시아를 인용하며 헨델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의 무릎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는 "헨델의 천재성 앞에서 겸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헨델은 무엇이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선택하면 그는 벼락처럼 내리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헨델이 그 신념 속에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부활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율령 전쟁, 테러, 경제적 빈곤이 사회를 더욱더 어둡게 뒤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희망을 갈구하고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기초가 되어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매년 고백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은 일 년에 한 번 부활절 시즌을 맞아 기념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일 년 내내 아니, 우리의 평생에 예배 중심에 그리고 삶의 중심에 기억되어야 할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 삶을 사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He is risen!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뉴저지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파푸아뉴기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지난 주, 파푸아뉴기니로 들어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후보
 선교사가정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딸아이들
 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실
 큰아이가 지금 13살인데 이 아이
 가 아기였을 때 저희가 이 선교사
 가정을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동
 안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이들을 부르시
 고, 훈련시키시고, 드디어 곧 파푸
 아뉴기니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
 작하게 되다니요! 저희가 마침,
 지금 한국에 있어서 이들에게 저
 희들의 경험을 나누고 조금이나
 마 이들이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발걸음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
 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역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보내시는 선교의 사령관 되시는
 주님께 이 가정을 올려 드리게 됩
 니다.

드디어, 1월23일, <나라> 신약
 성경이 인쇄 작업에 들어갔습니
 다. 미국에서의 마리사 선교사(조
 판작업), 파푸아뉴기니의 케롤 선
 교사(행정), 저희와 함께 서로 지
 원팀으로 사역하고 있는 양태완/
 김나영 선교사 부부 (PNG본부의
 비행단/재정부 소속), 그리고 자
 원하는 여러 선교사들의 연합작
 업으로, 지난 12월 13일, 파푸아
 뉴기니에서의 마지막 과정인 체
 킹파티(조판작업의 마지막 점검
 과정)를 통해 <나라>부족의 신약
 성경 조판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마리사선교사와 소통하
 며, 계속해서 표지와 속지 작업,
 그리고 출판을 위한 여러 섬세한
 부분들을 마쳐서, 드디어 지난 1
 월23일 대한 성서공회에 인쇄를
 하도록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지
 원, 지지, 그리고 기도에 정말 감
 사드립니다. 특히 감사한 일은 이
 번 <나라> 신약성경의 출판비용
 을 저희 파송 교회에서 전폭적으
 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11월말에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감기, 또 치료받아야 할 부분들을
 위해 병원에 다니면서, 인쇄 준비
 작업을 하면서 2024년 새해를 맞
 이하고, 다시 설날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
 역을 나누고, 개인, 또는 그룹으로
 소소한 만남을 통해 저희들을 충
 전시켜 주신 친구들, 동역자 들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저희는 두 번째로 성경을 출판하
 게 되어 그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와이마> 부족의 성경을

조판작업 할 때의 기억들이 새록
 새록 떠오르며, 지난 20여년을 돌
 아보니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
 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그분의 시
 간이었습니니다. 이번 두 번째 나라
 성경은 먼저 번역이 마쳐져서 보
 급된 <와이마> 성경을 토대로 <
 와이마> 부족 출신의 아버지와 <
 나라>부족 출신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피터 바끼 (정부에서 일하고
 있던, 공무원)가 초역을 할 수 있
 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이어
 서 부족마을에서 여러 연령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번역을 다
 들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두 번
 역자들(아우아와 알리)을 방문해
 사역 지도자 훈련, 이어서 성경번
 역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들
 은 <나라>부족의 성경번역을 이
 끌어가며 주 사역자들로 성장했
 습니다. 저희 부부가 2009년부터
 3년동안 한국에서 본부사역을 하
 였고, 그 이후 다시 선교지로 귀
 임하면서부터 김남수 선교사는
 번역 자문위원 역할과 이들을 돕
 는 촉진자로 사역방향이 전환하
 였고, 이덕신 선교사는 파푸아뉴
 기니 본부의 행정사역을 하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와이마>, <나
 라>, <가바디> 이 세부족에서 그
 동안 훈련을 받고 번역을 해오던
 형제들은 각 부족의 리더로서 성
 경번역을 중심으로 교회와 부족
 마을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후반기부터, 저희가 한국으로 돌
 아와 어머니(인지장애)를 돌보며,
 본부사역을 하기 위해 비거주로
 사역 전환을 하고, 1년에 한두 번
 씩 이들을 방문해서 사역을 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의 발생
 으로 인해 몇 년 동안 이들을 방
 문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번역사역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
 던 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였을
 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라>부족
 마을에서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
 후,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
 다. 파푸아뉴기니 부족 마을들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과 그다지 변
 함이 없는 삶가운데서 살고 있으
 나, 이제 곧 자기네들의 말로 기
 록된 하나님말씀을 갖게 된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온 부족 사람들이
 10월6일을 성경을 하나님께 봉헌
 하기위해 함께 모이는 봉헌식 날
 로 정하여 기쁨의 감사 잔치를 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번역
 위원회장(지미 썸)을 중심으로 부
 족가운데 있는 여러 교단의 지도
 자들과 각 마을의 지도자들이 모
 여 회의를 하면서, 이 잔치에 초

대할 손님들, 국내외에서 오게 될
 손님들 맞이할 준비로 몸과 마음
 이 분주 해지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이 지역의 연합교회
 노회 여전도회 지도자들 모임이
 나라부족의 오로이 마을에서 열
 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봉헌식
 을 위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기도제목을 나누며, 아우아 형제
 와 함께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 찬
 양을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함께
 이 길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
 사드립니다.

한국본부(GBT) 사역을 종료하
 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에는...지난 약 6년동안 파푸아뉴
 기니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
 본부의 해외사역팀에서 학술담당
 (김남수), 그리고 시니어 멤버들
 의 행정담당(이덕신)을 해 왔습니
 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사역을 인
 수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
 내 본부에서 일하면서 한국교회
 와 흠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격려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예전에
 저희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
 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주께서 부르신 이 일에 순종하며
 걸음을 걸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본부 사무실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
 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함께 함’의 기쁨, 삼위일체이신 하
 나님을 풍성히 누리보기 위해 애
 쓰면서 지냈던 시간들로 저희는
 행복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계
 속해서 본부사역을 하는 귀한 동
 역자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모
 아 기도합니다.

올 후반기(10월6일) <나라>부
 족의 성경 봉헌식 준비를 위해, 5
 월부터 약 6개월을 예정하며 파
 푸아뉴기니에 들어가려고 합니
 다. 그런데 현재 이 나라가 정치
 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
 데 있어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며
 준비 중입니다. 저희 마음은 먼저,
 <나라부족>의 신약 성경을 녹음
 해서 오디오 성경으로 만들고, 가
 능하다면 <예수영화>를 부족어로
 더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
 마>부족의 구약번역을 하고 있는
 형제들을 격려하고, 지금까지 진
 행된 구약의 책들을 정리하면서
 이들과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구
 체적으로 해 나가는 일에 집중하
 려고 합니다. 물론 더디게 가고
 있는 <가바디>부족의 신약번역에
 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
 다. 이제 저희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식

적으로 GBT선교회에서 은퇴할
 예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
 퇴 후, 선교사의 길은 걸어가 보
 지 않은 길이지만, 주께서 열어
 주시는 길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
 며 걸어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일들,
 세 부족의 번역사역과 여러 다양
 한 사역들... 동료선교사들과 현
 지사역자들의 번역을 컨설팅하
 고, 문해사역과 성경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역에 일꾼이 필요하기
 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이들에
 게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리라
 생각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이들에게 달려가야겠지
 요. 그렇게 순종하며 즐거운 하산
 의 은퇴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남수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
 들의 사도행전(8월) 점검을 해주
 기로 약속이 되어있고, 6월에도
 자문점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동료 선교사가 있지만 기다리면서
 진행사항을 보려고 합니다. 이
 덕신 선교사는 세 부족의 성경
 활용사역을 위해 기대감으로 준
 비중에 있습니다.

<와이마> 부족, 우꼬 형제가 눈
 물이 글썽글썽한 얼굴로 저희들
 에게 말하던 모습, 그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김 선교사님, 죽지는 마세요!
 와이마 구약성경이 마쳐질 때까
 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저희
 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한 성도님과 교회들, 여
 러분의 기도와 지지와헌신과 섬
 겨주심으로 여기까지 저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현재의 세계정세와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섭게 추운 겨울 같지만,
 추운 겨울을 지내고 나서야 봄과
 여름이 오듯이, 여러분 한분 한분,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약
 속의 말씀안에서 참 소망으로 가
 득채워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김남수, 이덕신 선교사 드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국가명
중국
- ▲ 종족명
니쓰(남동튀튀포) 종족
- ▲ 인구
약 36,000명
- ▲ 종교
민속 종교 92%, 무교 8%, 복음화율 0%
- ▲ 복음매체
신약 완역, 구약 번역 필요, 복음매체 없음
- ▲ 종족 프로파일
이족의 하위 종족으로 분류되며, 스스로 튀튀포라 부
르지만 중국의 다른 튀튀포가 있어 남동 튀튀포로 불린
다. 15,18세기 두 번에 걸쳐 베트남으로 이주했다. 최근
중국 도시에 사는 많은 튀튀포족은 한족 사람들과 동화
되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잊어버리고 있다. 미신을
믿고 조상을 숭배한다.
- ▲ 기도제목
1. 가장 소외되고 복음에 굶주린 이들이 자신의 말로
된 복음을 듣게 되도록
2. 조상숭배로부터 돌이켜 길이고 진리이신 하나님
을 알게 되도록
3. 번역된 신약성경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나아가 구
약 성경 번역도 니쓰족의 주도 아래 시작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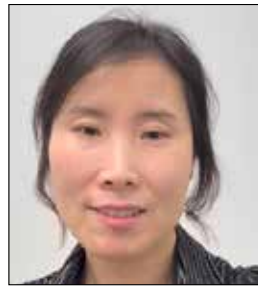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제 9회 신앙도서독후감 공모전 장려상

「탕부 하나님」을 읽고
아버지와 나,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



임은아 집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어떠한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매우 새로운 관점으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짧지 않은 나의 신앙생활 중에서 지난하게 나를 괴롭혔던 문제, 나의 삶에는 왜 기쁨이 없는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조금은 찾을 수 있었다.

아버지의 통제 아래 살고 싶지 않아,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하는 매우 불손한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준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보다 더 충격적이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심지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한다. 나라면, 더러운 꼴로 돌아온 아이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고 거친 말로 아이를 비난하고 몰아붙였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보다는 올바른 행동의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거침없이 잘못을 지적했던 나의 모습으로 인해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아이들을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것이 여전히 나에게서 어려운 일이지만, "은혜와 진리"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한다.

있어서도 나는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과 섬김의 동기가 되었다. 나의 모든 활동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나의 바람에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의 삶이 평안하고 순탄하기를 암묵적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최근 어려운 일이 생겼고 그 일을 겪는 나의 모습은 영락없는 "형"의 모습이었다. 이 일은 내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다. 혼자였다고 생각한 나를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고,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주셨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을 통하여 나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로 손가락질하며 무시하였다. 그들을 정죄하고 비웃었다. 이 책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도 첫째 아들의 태도와 같이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불순종의 마음을 동생처럼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돕고 순종하는 것으로 포장 한 것 뿐이었다. 나의 다소 울벌적이고 배리배리인 면이, 자녀들에게 더 엄격한 엄마가 되게 했고, 남편과 자녀를 거침없이 비난하는 허가 되게 했다. 조건없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나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조건없이 보상이 가족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다시 찾은" 인생이 되고 싶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이제 나는 "진정한 형", 나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나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기쁨으로 나를 채우기를 간구한다. 나의 목적과 동기가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가득 차 때,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발전이 있고, 나의 삶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도한다.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문제 중의 문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위기의 근원을 모르고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골똘히 생각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위기다"라고 자기 논리를 펠니다. 들어보면 피상적이고, 겉데기인 것이 많습니다. 큰 문제다. 위기라고 하지만, 형편만 말하고 세상만 탓합니다.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속 빠집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아무런 변화도 꾀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 달 란트를 받은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과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위기가 나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위기는 더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주의 얼굴 앞에 볼 꼴짓이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요나는 폭풍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때로 형언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성도가 겪는 모든 환난은 형벌이 아니라 숙제입니다. 얇이 캄캄한 인생의 숙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풀어야 해답이 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와 위기의 한 복판,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시편 34:6)

bible66@gmail.com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4월의 정원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오가는 길목에서, 그리고 가까이 멀리 보이는 들과 산자락에서 봄이 온다고 손짓하던 이런 저런 봄꽃들이 살랑대는 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 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져가고 있는 자리에 연초록 잎들이 얼굴을 내밀고 손짓하며 저로 또 다시 미소 짓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손짓하며 미소 짓

게 해주고는 있지만 살랑이는 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땅에 뒹굴고 있는 꽃잎들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은 이내 시무룩해지고 맙니다. 그런 제 마음으로 다가오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저렇게 땅에 뒹굴어 줄 수 있어야 해, 가지에 매달려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말고 미련 없이 저렇게 져줄 수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떨어져줘야 열매가

열려 자라는 여름이 오고, 열매가 여물고 익어 추수할 가을이 온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 또 예쁜 꽃을 피워줄 봄이 온다."

이 아침에 이 속삭임을 듣고 미소 짓는 내게 하나님은 요한복음 12:24절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명준모 위장간내과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